

통(通)성경 방법을 통한 성경듣기에 대한 연구

48시간 역사순 성경듣기와 1년 10번 성경듣기를 중심으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 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김한성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16년 5월

Copyright © 2016 HanSung Kim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A Study on the Bible Listening through the “Tong Bible” Method: With Focus on 48 Hours Chronological Order of the Bible Listening and Listening to the Bible 10 Times in One Year.

Hansung, Kim

Hi-Gippeum Church, Seoul

We will soon celebrate the 500th anniversary of the Reformation that Luther started with posting 95 Theses on Wittenberg University Church in 1517. Protestant churches have grown on the basis of the spirit of the Reformation such as *‘sola scriptura’*, *‘sola fide’* and *‘sola gratia’* for last 500 years. However, Protestant churches today have lost the spirit of the Reformation and went away from the Bib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concrete alternative in order to restore *‘sola scriptura’*, the spirit of the Reformation and back to the Bible.

This study used the methodology of ‘Tong-Bible’ and ‘Narraphor.’ ‘Tong-Bible’ methodology created by ByoungHo Zoh is to read as a ‘whole’ and not in ‘part,’ to read in chronological order, to focus on the Heart of God. ‘Narraphor’ method created by Leonard Sweet is to understand the events of the Bible as a narrative and metaphor. In addition, this study used the ‘Bible Listening’ method in order to maximize the benefits of the ‘Tong-Bible’ methodolog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ethodology of ‘Tong-Bible’ and ‘Bible Listening’ in detail. The author propose ‘48 Hours Chronological Order of the Bible Listening’ and ‘Listening to The Bible 10 Times in One Year’ as an important alternative for the recovery of the Bible. The author interviewed in-depth 4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is program. As a result, the methodology of

‘Tong-Bible’ and ‘Bible Listening’ is very effective in studying the Bible. Especially, listening to the Bible in chronological order and understanding the Bible as the Heart of God are very effective.

The author wishes Protestant churches to recover the Bible, the essence of the Protestant faith while celebrating the 500th anniversary of the Reformation. In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s ‘Bible-Tongchung’ applying the methodology of ‘Tong-Bible’ and ‘Bible Listening’. The author is confident that ‘Bible-Tongchung’ will be an effective alternative.

국문초록

통(通)성경 방법을 통한 성경듣기에 대한 연구
48시간 역사순 성경듣기와 1년 10번 성경듣기를 중심으로

김한성

하이기쁨교회, 서울

루터가 1517년에 비텐베르크 대학교회에 95개조의 반박문을 게시하면서 시작된 종교개혁이 곧 50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지난 500년 동안 개신교회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라는 종교개혁 정신의 기반 위에서 눈부시게 성장해왔다. 그러나 현재의 개신교회 상황은 종교개혁 정신을 잃어버리고 성경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개신교회가 ‘오직 성경’ 이라는 종교개혁 정신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함에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통성경’ 방법론과 ‘내러포’ 방법론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통성경’ 방법론이란 ‘통박사’ 로 알려진 조병호가 창안한 것으로 성경을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고, 성경을 역사순으로 재배열하여 읽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방식이다. ‘내러포’ 방법론은 레너드 스윗이 제안한 것으로 성경의 사건을 이야기와 은유로 이해하는 방식이다. 또한 ‘통성경’ 방법론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성경 듣기’ 방식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통성경’ 방법론과 ‘성경 듣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연구했으며, ‘통성경’ 과 ‘성경듣기’ 방법을 적용한 ‘48시간 역사순 성경듣기’ 와 ‘1년 10번 성경듣기’ 프로그램을 성경을 회복하는 중요한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4명을 선정하여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통성경’ 방법론과 ‘성경 듣기’ 방식이 성경을 공부하고 이해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방법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특별히 성경을 역사순으로 재배열하여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는 방식이 매우 효과적이었다.

본 연구자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개신교회가 신앙의 본질인 성경을 회복하기를 소망한다. 이를 위해 결론적으로 ‘통성경 방법론을 통한 성경듣기’인 ‘성경통청(Bible-Tongchung)’을 제안하며, 이 ‘성경통청’이 매우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목 차

감사의 글	x
표 목차	ix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
선행 연구	3
연구의 방법	3
연구의 범위와 제한성	4
논문의 구조	5
II. 통(通)성경 방법론	6
통(通)이란?	6
통(通)성경	20
III. 듣는 성경	33
청각적 환경과 듣기의 중요성	33
듣는 성경의 성경적 근거	44
듣는 성경의 신학적 근거	53
듣는 성경의 목회적 근거	70
IV. 성경듣기 진행의 실제	75
48시간 역사순 성경듣기	75
1년 10번 성경듣기	97
V. 성경듣기 참여자 심층 인터뷰	101
인터뷰 개요	101

인터뷰 내용	101
결과 분석	113
VI. 결론	117
요약과 평가	117
결론과 제언	118
참고 문헌	122

표 목차

<표1> 통성경 학교 커리큘럼	28
<표2> 기독교강요, 시각주도적인 것에 대한 비판이 나와 있는 권, 장, 절	59
<표3> 1년1독 통독성경, 구약성경 목차 1	77
<표4> 구약성경 목차 2	79
<표5> 구약성경 목차 3	81
<표6> 신약성경 목차	83
<표7> 48시간 역사순 성경듣기 타임 테이블	90
<표8> 1년 10번 성경듣기를 위한 타임테이블	97
<표9> 2015년 하이기쁨교회 ‘1년 10번 성경듣기’ 참여자 100명 현황표	99

감사의 글

설렘과 떨리는 두려움을 안고 시작했던 학위 논문, 이제 비로소 모든 과정을 마치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먼저는, 통(通)성경 방법을 통한 성경듣기에 대한 연구 논문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다함 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본 논문을 진행하고 마무리함에 있어 자식을 향한 부모님처럼 마음을 다해 지도해 주신 조병호 교수님, 김영래 교수님, 레너드 스윗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로 하여금 드루대학교 목회학 박사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꿈을 주시고, 참된 신학자로 목회자로 롤모델이 되어 주시며, 삶의 멘토가 되셔서 이끌어주신 존경하는 조병호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글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의 마음을 담아 소중한 충고와 조언으로 지도해주신 존경하는 김영래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냉철한 시각과 최고의 강의로 귀한 가르침을 주신 레너드 스윗 교수님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늘 든든한 힘이 되어 주시고 논문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사랑과 배려를 아끼지 않은 통독원과 하이기쁨교회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역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1년 10번 성경듣기’에 기쁨으로 참여해주시고, 정성껏 인터뷰에 응해주신 하이기쁨교회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의 사랑과 참여가 없었다면 이 논문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김희영)와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하늘 보석 같은 딸들 예빈, 하빈, 유빈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필요한 자료를 찾아주고, 부족한 글을 읽어준 아내에게 진심을 다해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늘 기도와 아낌없는 응원으로 힘이 되어주시는 매형과 누님 고송규 집사와 김옥순 장로에게 감사 드립니다. 이 외에도 제가 미처 언급하지 못한 고맙고 감사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분들의 이름을 모두 새기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대신 제 깊은 감사의 말로 이 글을 마칠까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3월에

김한성

제 I 장

서 론

연구의 필요성

1517년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교회에 95개조의 반박문을 게시하면서 시작된 종교개혁이 곧 50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지난 500년 동안 개신교회는 ‘오직 성경 (*sola scriptura*)’ , ‘오직 믿음(*sola fide*)’ , ‘오직 은혜(*sola gratia*)’ 라는 종교개혁 정신의 기반 위에서 눈부시게 성장해왔다. 특별히 종교개혁 정신의 가장 핵심인 ‘Sola Scriptura’ 는 중세 1,000년을 지배했었던 로마 가톨릭과의 차별화된 개신교의 정체성을 세워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마틴 루터(Martin Luther)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의 헌신적인 성경번역은 지난 500년간 계속 진행되어, 현재는 23,000여개 민족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세계 그리스도인의 손에 성경이 들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을 보면, 전세계 그리스도인의 손에 성경이 들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신교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성경에서 멀리 떠나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매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사들의 설교는 성경 이야기가 아닌, 세상 이야기들로 가득차 있고, 성경의 핵심적 가르침에서 유리된 채 부흥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다가오는 이 즈음 ‘종교개혁 500주년이 개신교의 탄생을 축하하는 축제가 될 지 아니면 개신교의 추

도 예배가 될 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며¹ 개신교가 종교개혁의 핵심인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다.

미국의 교회미래학자 레너드 스윗은 종교개혁 이후 500년간 서구중심의 패러다임 속에서 성장해 온 개신교의 수명이 다해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21세기 개신교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서양과 동양이라는 두 개의 폐로 숨을 쉬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²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논문은 개신교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과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현상은 많은 개신교회들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목회의 방향을 말씀중심으로 세워가려 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성경연구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인 성경통독과 ‘통(通)성경’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실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성경통독을 진행하는 교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성경통독과 ‘통(通)성경’ 자체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이루어지 않은 듯 하다. 왜냐하면 성경통독을 진행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성경통독과 ‘통(通)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방법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성경읽기나 성경공부의 또 다른 표현 정도로 이해하고 진행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논문은 이러한 개신교회의 분위기 속에서 성경통독과 ‘통(通)성경’의 정확한 의미와 방법론을 제시하고, 실제 교회의 목회현장에서 성경통독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48시간 역사순 성경듣기’와 ‘1년 10번 성경듣기’를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48시간 역사순 성경듣기’는 이미 제목 자체에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듯이, 21세기의 새로운 사회문화적인 환경에서

¹ 레너드 스윗, *드루대학교 목회학 박사 과정 강의* (2013년 9월 9일)

² 레너드 스윗, “세계석학칼럼: 동서양교회의동행,” (국민일보 2007년 3월 22일).

성경의 내용을 교인들이 보다 더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경의 내용을 이야기(story)로 이해하고, 소리로 들을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다.

지식을 학습하는 방법에 있어, 딱딱한 명제나 논리보다는 이야기(story)를 통한 방식이 효과가 있으며, 눈으로 읽어가는 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귀로 소리를 듣는 방식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떠올려볼 때 이야기(Story)와 듣기(Listening)를 주된 방법으로 구성하고 있는 ‘48시간 역사순 성경듣기’와 ‘1년 10번 성경듣기’에 대한 연구는 개신교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선행 연구

종교개혁 이후 현재까지 개신교는 성경연구에 많은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왔으며, 각 시대마다 성경연구의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효과적인 성경읽기와 성경교육 방식을 제시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통독 방식과 ‘통(通)성경’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극히 부분적인 차원에서 성경통독을 다룬 연구가 있기는 하나 내용과 방법 면에서 아쉬움이 많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통(通)성경’과 관련해서 성경통독을 한국교회에 전파하고, 학문화를 이루며, 성경통독의 세계화의 초석을 마련하고 있는 조병호의 저서들을 많이 참고했다.

듣는 성경과 관련해서는 선행연구자료들이 있으나 일반교육적 측면에서 듣기와 귀의 기능이 가지고 있는 효과와 장점을 다룬 연구자료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시각화해서 보기 보다는 청각화해야 한다는 연구도 있었다.

연구의 방법

본 논문은 문헌연구와 함께 인터뷰의 방법을 함께 활용하고자 한다. 문헌연

구로는 ‘삶의 방법론이자 새로운 성경읽기의 방식으로 통(通)’을 주장한 조병호의 ‘통(Tong, 通)성경’ 방법론을 사용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지난 종교개혁 이후 500년간 주로 사용되어 온 서양의 방법론과 더불어 동양적 방법론을 연결하는 방식인 통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인터뷰는 성경통독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48시간 역사순 성경듣기’와 하이기쁨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1년 10번 성경듣기’에 함께한 참여자들 중에서 4명을 선발하여 서면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의 범위와 제한성

본 논문은 종교개혁 이후 500년간 진행되어 온 성경에 대한 이해와, 성경공부 및 성경읽기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살피기 보다는 21세기 새로운 사회적, 문화적 환경 속에서 성경을 효과적으로 읽고 학습할 수 있는 ‘통(通)성경’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다만 ‘통(通)성경’ 방법론의 타당성과 논리적 근거를 밝히기 보다는 조병호가 그동안 주장해 온 ‘통(通)성경’의 정의와 구체적 내용을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자 한다.

또한 ‘통(通)성경’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성경읽기’, ‘성경필사’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성경듣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듣는 성경’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사람의 감각 중에서 ‘듣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효과를 살펴보겠지만, 본 논문이 ‘듣기’에 대한 의학적, 생물학적 논문이 아니기에 전문지식까지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또한 성경듣기 진행의 실제에서는 ‘통(通)성경’의 방법론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본 논문에서는 이야기로 성경을 이해하

는 통(通)성경 역사순 방법과 음성으로 이해하는 ‘성경듣기’ 방법에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논문의 구조

이 논문은 아래와 같이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전개하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제 I 장에서는 이 논문의 필요성, 선행연구, 연구의 방법, 연구의 범위와 제한성, 이 논문의 구조에 대해 다루려고 한다. 제 II 장에서는 통(通)성경 방법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데, ‘통(通)의 개념’ 과 ‘통(通)의 방법론’, ‘21세기와 통(通)’을 통해 통(通)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루고, 통(通)성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제 III 장에서는 듣는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듣기와 읽기를 비교함으로써 성경읽기를 보완할 수 있는 듣기의 장점과 효과를 언급하고, 듣는 성경의 성경적 근거, 신학적 근거, 목회적 근거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제 IV 장은 ‘48시간 역사순 성경듣기’ 와 ‘1년 10번 성경듣기’ 의 진행의 실체를 다루게 된다. 3박4일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구체적 실체를 다루면서 동시에, 교회와 가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역사순 성경듣기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시하고자 한다. 제 V 장은 ‘48시간 역사순 성경듣기’ 와 ‘1년 10번 성경듣기’ 에 참여했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인터뷰의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또한 결과분석을 통하여 ‘48시간 역사순 성경듣기’ 와 ‘1년 10번 성경듣기’ 가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VI 장에서는 본 논문의 요약과 평가, 그리고 결론과 제언으로 끝을 맺고자 한다.

제 II 장

통(通)성경 방법론

통(通)이란?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화두로 떠오른 단어 중의 하나가 ‘통(通, Tong)’ 이다. 방송은 물론, 언론사, 기업, 학원, 출판사 등 많은 기관에서 통(通)을 활용하여 활발한 마케팅과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통(通)박사로 알려진 조병호는 2006년 6월, 하이기쁨교회의 주일예배에서 ‘탕(湯)과 통(通)’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고, 2006년 12월 차이나네트워크연구소(CNI) 1주년 기념 포럼에서 ‘통(通, Tong)’ 사상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¹ 이 장에서는 조병호가 말한 ‘통(通, Tong)’의 개념과 내용, 그리고 이와 더불어 레너드 스윗이 말한 ‘내러포(narraphor)’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통(通)의 개념

통(通)은 한국사회는 물론 동양 문화권에서는 보편적이며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단어이다. 먼저 ‘통(通)’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통(通)’ : 통하다, 왕래하다, 알다, 전하여 알리다, 정을

¹ “21세기 동서동행 미래교회 컨퍼런스,” 자료집 (2007), 23.

통하다, 온통, 통(편지 또는 서류를 세는 말)².

조병호는 ‘통(通)’의 의미를 가장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표현으로 ‘통하다’를 언급하면서, ‘통하다’의 대상이 사람과 사물일 수도 있고, 구체적인 대상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대상도 가능하며, ‘통하다’라는 말의 대상이 복수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³ 다시 말해, ‘통하다’라는 개념은 어느 특정 대상을 두고 이르는 말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직면하는 총체적 모든 상황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병호는 ‘통(通)’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함에 있어 ‘통으로 보다’라는 말의 의미를 중요하게 인식하면서 어떤 대상을 이루고 있는 것은 요소를 꿰뚫어서 살펴보고 이해하는 것으로 설명한다.⁴ 다시 말해, 조병호가 말하는 ‘통으로 보다’는 것의 의미는 대상을 분별하여 판단하고 이해함에 있어 철두철미하게 꿰뚫어 보고, 모든 면에서 여러 요인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요인들을 하나도 빠뜨림 없이 객관적이고 총체적으로 볼 때, ‘통으로 본다’라는 말의 의미가 성립된다.

조병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통으로 본다’의 의미를 서양의 분석적인 사고와 동양의 전체적인 사고를 유기체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이라고 말한다.⁵ 서양은 대체적으로 대상을 인식함에 있어 부분에 집중해서 주도면밀하게 관찰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반면에, 동양은 부분에 집중하기 보다는 어떤 대상이 전체적인 상황

² 김낙준, *뉴에이스 국어사전* (서울: 금성교과서주식회사, 1993), 1958.

³ 조병호, *통이다 렛츠통* (서울: 통독원, 2007), 55-57.

⁴ Ibid., 62.

⁵ Ibid., 64.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는지를 사고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조병호는 이러한 동서양의 독특한 방식을 하나로 함께 묶어 ‘통(通)’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한 것이다.

동양과 서양의 사고를 통합하는 방식은 조병호가 최초로 시도한 주장이며, 통(通)을 이해하는 핵심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通)’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은 서양적이라기 보다는 다분히 동양적이다. 그런데 조병호는 동양적인 사고의 보편성을 뛰어넘어, 동양과 서양적 사고의 특징과 장점을 균형있게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인 ‘통(通)’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글자의 모습은 똑같지만 조병호가 말하는 통(通)의 의미는 동양적 사고의 패러다임에서 보편적으로 생각해왔던 것과는 달리 그 이상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통(通)의 의미를 새롭게 재발견하고 재해석 했다고 할 수 있다.

조병호가 재발견하고 만들어낸 통(通)은 대상자체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그 대상에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시대에 가장 큰 거대담론이라 할 수 있는 동양과 서양의 방식까지 하나로 묶어 대상에 접근하는 방법인 그의 주장은 충분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조병호는 어떠한 대상이든지 그 대상을 인식할 때, 그 대상의 본질뿐만 아니라 그 대상의 주변을 감싸고 있는 것들까지 모든 요인들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인식의 틀로 통(通)을 정의한 것이다.

통(通)의 방법론

이제 통(通)의 개념에 이어 통(通)의 방법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조병호는 “통(通)이란,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정신을 관통하는 상수(常數)이며, 대상의 속성을 하나부터 열까지 꿰뚫어 총체적으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관계와 계약, 공시

와 통시, 이성과 감정, 지식과 실천, 부분과 전체 등의 서로 다른 영역을 동시에 봄으로써 조화와 균형, 공존과 발전의 길을 모색하는 것”⁶ 이라 말한다. 중심성이 해체되고 모든 대상을 상대화하여 파편화시키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서로 다른 형태로 다양하게 나뉘지고 특성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묶어낼 수 있는 방법을 통(通)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통(通)은 ‘서로 전혀 다른 이질적인 요소를 하나로 묶어내는 방법’이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이질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낼 수 있을까? 통(通)이 바로 이질적인 요소들을 묶어낼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에, 조병호는 통(通)을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정신을 관통하는 상수’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조병호는 통(通)의 방법론을 5가지로 설명하는데, 첫번째 방법론은 ‘전체와 부분을 동시에 보는 것’이다.⁷ 조병호가 말하는 통을 이해함에 있어, 이 방법은 가장 중요한 핵심 방법이며, 기본 전제와도 같은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중심성을 잃어버리고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개체 자체에 집중을 하면서도 개체들을 전체로 연결하고 묶어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전체와 부분을 동시에 보는 방법’이다. 전체와 부분을 의미할 때, 조병호는 ‘숲과 나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⁸ 전체 숲을 보면서 그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세심하게 살펴보는 방식이다.

두번째 방법론은 ‘분리된 개체 속에 부여할 수 있는 공통특성을 찾는 것’이다.⁹ 이 방법은 어느 한 부분을 중심으로 다른 부분들을 일방적으로 맞춰가는 형식이 아니라, 모든 개체 안에 들어 있는 공통점을 찾아내 그 공통점을 연결 고리로

⁶ Ibid., 85.

⁷ Ibid., 89-99.

⁸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통독원, 2009), 29.

⁹ 조병호, *통이다 렛츠통*, 92.

하여 서로 함께 존재할 수 있도록 모색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세번째 방법론은 ‘극단을 유기적으로 아우르는 것’인데, 모더니즘의 상황 속에서 극단적이었던 것들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상황 속에서는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개체들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우를 수가 있는 것이다.¹⁰

네번째 방법론은 ‘하나의 현상에 관해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¹¹ 동일한 대상이라 할지라도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고 인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대상으로 보인다. 그러기에 어느 한 각도와 관점에서 인식한 내용을 가지고 그 대상에 대한 이해를 100% 했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어떤 대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식하는 주체가 쉽고 편한, 그리고 익숙한 방법만으로 접근해서는 안되고,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다섯번째 방법론은 ‘Text와 Context의 관계를 조명하는 것’이다.¹² Text 자체의 본질은 결코 변할 수 없지만, 환경과 상황이라는 Context 안에서는 다양한 모습과 각도로 비춰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Text와 Context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균형 잡힌 시각으로 어떤 대상이나 현상을 이해해야 한다.

이상으로 조병호가 말하는 통(通) 방법론의 5가지 내용을 살펴보았다. 조병호는 모더니즘의 반작용으로 등장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상황 속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현실과 특징을 받아들이되, 포스트모더니즘의 부정적 영향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창조적 대안으로 통(通)을 제시했다. 그리고 그 통(通)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상황 속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5가지 방법론을 말함으로 다양한 삶의 적용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5가지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말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라도

¹⁰ Ibid., 94-96.

¹¹ Ibid., 96.

¹² Ibid., 98-99.

그 대상을 인식함에 있어 정확하고 광범위하게 작동할 수 있는 틀로 통(通)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결국, 조병호는 ‘통(通)을 21세기에 필요한 총체적 삶의 방식으로 제시’¹³ 함으로 통(通)의 의미와 기능을 정확하게 보여주었다.

21세기와 통(通)

통(通)의 역할

지금까지 통(通)의 개념과 방법론에 대해 다뤘다. 이 장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대변되는 21세기 시대적 상황 속에서 통(通)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조병호가 최초로 개념화한 통(通)은, 21세기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적 상황을 자양분으로 탄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하기에, 21세기에 통(通)의 역할은 더 큰 비중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21세기는 이전 세기와는 다르게 여러 방면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다. 명실상부하게 세계는 지구촌화 되어 가고 있다. 이전 세기의 인류는,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정한 경계를 가지고 서로의 가치를 추구하며 별다른 갈등 없이 지내올 수 있었다. 지리적이고 물리적인 경계와 장벽이 높아 교류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측면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1세기는 교통, 통신, 인터넷 등의 발전으로 이러한 모든 경계가 사라지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사회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인류의 모든 영역에서 서로 다른 문화들의 대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조병호는 이러한 새로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모더니즘적 사고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사고방식으로 해결하기에

¹³ Ibid., 142.

도 여전히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한다. 포스트모더니즘적 인식이 개별화된 개체들의 존재를 인정하나, 파편화되어 산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개체들의 무질서와 혼란함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병호는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이 안고 있는 부정적인 현상들을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넘어설 수 있는 대안으로 통을 제시하며, 21세기의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¹⁴

조병호의 이러한 주장은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대변되는 21세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정확하게 적중하고 있다. 통(通)은 포스트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장점, 다시 말해 제각각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개체들의 다양성과 존재가치를 그대로 수용한다. 동시에 포스트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 즉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무질서와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개체로 존재하는 대상들의 본질을 꿰뚫어보며, 그 많은 대상들에게 유기체적 의미를 부여하고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인류 역사를 보면 각 시대마다 그 시대 전체를 포괄적으로 담아냈던 시대적 관념과 사유의 큰 틀이 있어왔다. 전체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대변되는 21세기에 도 시대 전체를 담아낼 수 있는 큰 틀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병호가 주장하는 통(通)이 바로 21세기에 일어나는 현상과 담론을 담아낼 수 있는 틀이며, 통(通)이 그 역할을 충분하게 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레너드 스윛과 내리포(narraphor)

지금까지 통(通)이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대변되는 21세기 시대적 상황을 담아낼 수 있는 인식과 사유의 큰 틀임을 살펴보았다. 이제 통(通)과 함께 21세기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내리포(narraphor)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¹⁴ Ibid., 140-141.

레너드 스위트(Leonard Sweet)은 “오늘의 문화는 더 이상 단어가 아닌 이미지, 은유, 상징,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영성을 표현하고 있다.”¹⁵라고 말하며, ‘내러티브(narrative)’와 ‘은유(metaphor)’의 합성어인 ‘내러포(narraphor)’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처음으로 사용하였다.¹⁶

김영래는 레너드 스위트의 표현을 빌어 “내러포(narraphor)는 이야기와 은유의 단순한 조합이 아니라, 이야기의 접근성과 근접성을 가진 은유적 이미지의 힘이라고 했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과 우리 자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은유로 만들어진 이야기”¹⁷라고 설명한다. 또한 레너드 스위트는 “이야기는 곧 윤색되고 수를 놓은 은유이며, 은유는 단지 축약되고 정제된 이야기”¹⁸라고 설명했는데, 이는 ‘내러티브(narrative)’와 ‘은유(metaphor)’를 합쳐서 ‘내러포(narraphor)’로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는 이유 중의 하나인 셈이다. 다시 말해, ‘내러티브(narrative)’는 확장 되고 더 풍성하게 꾸며진 ‘은유(metaphor)’의 한 종류이며, ‘은유(metaphor)’는 증류되고 압축된 ‘내러티브(narrative)’의 한 형태라는 것이다.

김영래는 내러포(narraphor)의 기능에 대해 3가지로 말하는데, “내러포(narraphor)는 새로운 실재를 형성시켜주며, 상황을 통한 메시지 전달을 가능하게 하고, 창조적 이해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이다.¹⁹ 다시 말해 내러포(narraphor)는 은유와 이미지를 통해 서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대상을 새로운 의미의 실재로 묶

¹⁵ Leonard Sweet, *Giving Blood: A Fresh Paradigm for Preaching*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2014), 156.

¹⁶ 김영래, “내러포와 기독교교육: 성경교수방법으로서의 내러포 탐구,” 84 *신학과 세계* (2015), 527

¹⁷ Ibid., 528.

¹⁸ Sweet, *Giving Blood*, 156.

¹⁹ 김영래, “내러포와 기독교교육,” 529-531.

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내러포(narraphor)는 그것을 듣는 사람들과 그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상황을 통해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각자가 처한 현실적 상황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앞으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떠올릴 수 있는 창조적 이해의 문의 열어준다는 것이다.

또한 김영래는 “내러포(narraphor)가 EPIC적이 되어야 한다”는 레너드 스윗의 말을 언급하면서, EPIC적 내러포(narraphor)를 네 가지로 말하는데, 경험적(Experiential) 내러포(narraphor), 참여적 내러포(narraphor), 이미지적 내러포(narraphor), 연결적 내러포(narraphor)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²⁰

김영래는 ‘성경은 이야기와 은유로 만들어졌고 전달되었으며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가장 효과적이고 적합한 방법 중의 하나는 내러포(narraphor)’라고 말한다. 따라서 ‘성경교수의 방법은 이야기와 은유를 이야기와 은유 자체로 읽고 듣는 내러포(narraphor)적 방법이 되어야 하며, 단어와 개념을 주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와 은유 그리고 이야기를 주석해야 함’을 강조한다.²¹

21세기 문화 언어가 이야기와 은유임을 감안할 때, 이야기와 은유로 만들어져 전달되고 보존되어 온 성경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효과적인 방법은 내러포(narraphor)가 될 수 있다. 21세기적 상황과 환경 속에서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본뜻과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이야기와 은유로 접근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내러포(narraphor)는 성경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론이 될 것이다.

²⁰ Ibid., 532-533.

²¹ Ibid., 546.

통(通)과 내러포(narraphor)

지금까지 조병호가 21세기 삶의 총체적 방법론으로 제시한 ‘통(通)’의 역할과 21세기 새로운 문화언어인 레너드 스윗의 ‘내러포(narraphor)’를 살펴보았다. 통(通)과 내러포(narraphor)는 여러 측면에서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크게 3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는, 21세기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21세기 시대적 상황이 통(通)과 내러포(narraphor)의 방법론이 등장하도록 분위기를 제공했다. 이 두 가지의 방법론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을 자양분으로 하여 그것의 장점을 살려가되 한계를 극복해 가는 방법론으로 이해될 수 있다.

둘째는, 21세기에 필요한 소통의 방법론이라는 점이다. 이 두 가지 방법론은 어떤 대상을 인식하고 사유함에 있어 고정된 하나의 방법과 사고의 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21세기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사고의 지평을 확장하는 창조적 대안으로 작용하고 있다. 어떤 대상이나 현상을 다양한 접근방법과 사유를 통해 새로운 실재로 묶어낼 수 있는 힘이 통(通)과 내러포(narraphor) 방법론에 들어 있다.

셋째는,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함에 있어 효과적인 방법론이라는 점이다. 성경의 본래 의미를 이해하는데 있어 통(通)과 내러포(narraphor)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어느 한 부분에 치우쳐서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보면서 그 이야기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내러포(narraphor)는 성경을 통(通)으로 볼 수 있는 창이 되며, 이야기와 은유는 분절이 아닌 통합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로 내러포(narraphor)와 통(通)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함에 있어 불과분의 관계에 있다.

통(通)과 파라독스(paradox)

통(通)과 내러포(narraphor)의 유사점을 살펴보았다. 이제 통(通)과 파라독스(paradox)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한다. 조병호는 “통(通)의 개념은 새로운 사고의 방법을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번역이 불가능하다.”²² 라고 말한다. 물론 통(通)과 유사한 느낌을 주는 Total이나 Whole이 있지만, 통(通)은 Total이나 Whole처럼 전체 그 자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전체와 부분의 관계에 있어서도 대전제가 다르기에 Total이나 Whole에서 말하는 전체와 통(通)에서 말하는 전체의 의미도 다를 수 밖에 없다.²³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通)의 의미와 역할에 있어 가장 가까운 단어를 찾아본다면 파라독스(paradox)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파라독스(paradox)는 ‘역설적인 사람’, 또는 ‘역설’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질적인 두 가지 요소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레너드 스윗은 드루대학교 목회학 박사 과정 수업에서 파라독스(paradox)가 서양보다 동양의 컨셉에 가까움을 언급하면서 서양은 언제나 파라독스(paradox)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양 극단에 위치한 다른 입장을 그 관계 속에서 그냥 존재 하도록 두지 않았음을 지적했다.²⁴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대상을 하나로 해결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 관계 안에 두는 부분이 바로 양극단을 유기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통(通)과 일맥상통한다.

Wil Watson은 그의 책 *The Principle Centered Life: Paradox - or Positive Living?* 에서 “예수는 진정한 생명에 이르는 죽음의 길을 가르쳤다. 그것이 우리의

²² 조병호, *통이다* 펠츠통, 69.

²³ Ibid., 72.

²⁴ 레너드 스윗, 드루대학교 목회학 박사 과정 강의 (2013년 9월 16일)

생명 원리의 파라독스(paradox)이다.”²⁵라고 말하면서 파라독스(paradox)를 설명한다. 또한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사도바울이 영적인 목적을 위해 자신의 죽음의 경험을 기록한 것’으로 설명한다.²⁶

예수님께서서는 서로 높아지려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20장 26~27절) 라고 말씀하셨다. ‘크고자 하는 자’와 ‘섬기는 자’,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와 ‘종’ 사이에는 이질적인 요소가 있다. 그런데 으뜸이 되거나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나 종이 되어야 한다는 역설이 들어있다.

이것이 바로 파라독스(paradox)이다. 파라독스(paradox)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두 요소가 충돌했을 때, 어느 하나를 버리고 다른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질적인 두 요소를 있는 그대로 품는 것이다. 통(通)을 파라독스(paradox)로 번역할 수는 없지만, 전혀 다른 양극단을 물리적인 힘으로 통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 속에서 유기적으로 아우르는 측면에서 볼 때, 이 둘은 매우 비슷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야기의 중요성

레너드 스윗은 그의 책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에서 “영혼을 만족시키는 삶이란 머리뿐 아니라 가슴으로 사는 삶을 가리킨다. 연출된 경험은 더 이상 환영 받지 못한다. 오늘날처럼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각색된 경험이 아니

²⁵ Wil Watson, *The Principle Centered Life: Paradox - or Positive Living?* (Indiana: Author House, 2008), 14.

²⁶ Ibid., 15.

라 자연스러운 진짜 경험에 목말라 있다.”²⁷ 라고 말한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더 풍성한 관계 만들기를 갈망하고 있다. 사람들은 흥미나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 사실인 것처럼 꾸민 각색된 경험보다는 진정성과 자연스러움이 묻어나는 진실된 경험에 목말라 하고 있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야기에 목말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진실된 이야기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다. 성경에는 모든 인생들이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관계의 근원이며 최고봉인, 예수님의 스토리가 들어 있다. 그러나 교회는 이 놀라운 관계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스토리를 들어야 할 수많은 고객들을 그 관계 안으로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 스타벅스나 세상이 가지고 있지 못한 최고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최고의 스토리를 스토리 자체로 매력적으로 세상에 내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상의 사람들은 바로 그 스토리를 원하고 있는데, 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스토리가 보이지 않도록 다른 엉뚱한 포장지로 가리고 말았다. 스토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자신감의 부족,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는 경영전략의 부재가 가져온 결과이다.

최근의 과학적인 연구에 의하면, 우리 인간의 뇌는 상대방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많이 활성화가 된다고 한다. 특별히,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를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와 연결시키기를 원한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뇌는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뇌는

²⁷ Leonard Sweet, *The Gospel According to Starbucks*, 이지혜 역,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57.

더욱 활성화 된다고 한다.²⁸

Ardath Albee는 그의 책 *Digital Relevance: Developing Marketing Content and Strategies that Drive Results* 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야기는 영원하다.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을 해석하고, 세상과 통하는 방법이며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우리가 한 결정을 정당화하는 방법이다. 스토리텔링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들이고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을 감정적으로 연결시키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그것은 지식을 전하는 가장 매력적인 방법이다. 사실(Facts)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매력적인 이야기로 짜여지지 않는다면 쉽게 잊혀진다.²⁹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신경과학자인 Uri Hasson은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뇌를 연구하기 위해 fMRI 라는 기계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야기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바꿀 수 있도록 뇌의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실험의 결론은 스토리텔링은 생각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다.³⁰

딱딱한 명제나 명령이 아닌 이야기를 들을 때, 인간의 뇌가 가장 많이 활성화 된다는 연구보고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야기는 상대방의 관심과 생각을 이끌어냄에 있어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이다. 또한 ‘이야기로 전달하는 것’ 이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의 마음에 각인시킬 수 있도록 상대방의 뇌의 일정 부분을 활성화시킨다는 실험결과는 소름이 끼칠만큼 ‘이야기’ 에 대해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김영미는 자신의 저서 『초등 듣기능력이 평생성적을 좌우한다』 에서 이야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어린 시절에 들었던 옛날 이야기들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있음을 말한다.³¹ 우리가 들은 명령은 쉽게 잊혀지지만, “옛날 옛

²⁸ Ade Asefeso MCIPS MBA, *Corporate Storytelling: Tell Them Your Story* (Wiltshire: AA Global Sourcing Ltd, 2014), Chapter 14: Using Story to Make Better Decision.

²⁹ Ibid., 103.

³⁰ Ibid.

³¹ 김영미, *초등 듣기능력이 평생성적을 좌우한다* (서울: 글담출판사, 2009), 154.

적에” 로 시작하는 이야기는 평생 기억에 남는다.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옛날 이야기가 세월이 많이 흘러 어른이 된 이후에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경험을 대부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처럼, 명제나 명령이 아닌 이야기는 교육에 있어 굉장한 효과를 지니고 있다.

통(通)성경

지금까지 조병호가 ‘21세기 총체적 삶의 방법론’ 으로 정의한 통(通)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조병호가 통(通)의 방법론을 성경공부에 적용한 ‘통(通)성경’ 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성경전체를 통(通)으로 보기 위한 3가지 방법을 살펴보고, 성경의 큰 그림 7개와 그 7개의 그림을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7스텝을 다뤄보고자 한다.

통(通)으로 성경보기

시간·공간·인간을 통(通)으로

조병호는 ‘성경에는 대략 2,000여 년의 시간과 1,500여 곳의 공간, 그리고 5,000여 명의 인간이 들어 있다’³² 라고 말하면서, 통(通)으로 성경을 보는 첫째 방법은 ‘시간·공간·인간을 통(通)으로’ 보는 것³³ 이라고 말한다. 즉, 성경의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 공간, 인간을 파편화하지 말고 통(通)으로 묶어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성경에는 시간과 공간과 인간이 공존하고 있는데 그 시간과 공간과 인간은 각각 별개로 보아서 안 되고, 반드시 통(通)으로 함께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리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등은 성경 속의 시간이

³²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15), 5.

³³ Ibid., 11.

지만 동시에 그 절기가 행해지는 장소가 있고, 그 시간과 그 장소에는 인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 속의 2,000여 년의 시간과 1,500여 곳의 공간과 5,000여 명의 인간을 시간 따로, 공간 따로, 인간 따로, 파편처럼 별개로 보지 않고 그 시간, 그 공간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지 통通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게 성경을 통通으로 보는 것이 바로 통通성경이다.³⁴

성경의 모든 사건들은 역사적 진공상태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역 했던 성경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과 동역을 했다.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를 먼저 역사순으로 정리하고,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그들이 두발을 딛고 살았던 공간적 배경을 살펴봐야 한다.

‘시간·공간·인간을 통(通)으로’ 보는 방법에 있어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성경전체를 역사 순으로 재배열하여 구성하는 것이다. 장르별로 편집되어 있는 성경의 유익함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역사 순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고 끊어지게 된다는 점이다.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역사 교사의 예를 들어 보겠다. 한국사 전체를 시대순으로 잘 배열하여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순으로 흐름을 따라 가르치는 교사와 시대순서 상관없이 오늘은 조선시대, 내일은 통일신라시대, 그 다음에는 고구려 등 시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가르치는 교사를 비교해보자. 학생들은 어떤 교사의 강의를 더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겠는가? 당연히 전자일 것이다. 한국사 공부를 시대순으로 정리하여 가르치고 공부하는 것처럼, 성경의 내용과 역사도 역사순으로 가르치고 공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예로, 예레미야의 경우를 통해 인간과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통으로 이해해야 하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왕정 500년’에

³⁴ Ibid.

종지부를 찍고 바벨론 포로 70년의 기간을 통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제사장 나라’의 꿈을 다시 시작하시는 중요한 순간에 부름을 받아 활동한 선지자이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는 그 무렵에 사역을 감당했다. 시간적으로 보면,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는 주전 586년을 중심으로 전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다. 공간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주로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가 전한 메시지는 남유다 백성들이 애굽이 아닌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 70년간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하박국과 스바냐, 나훔 선지자 등이 있으며, 또한 끝까지 예레미야의 사역과 대척점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 하나나도 있었다.

이렇게 한 인물을 중심으로 시간과 공간을 함께 살펴본다면, 성경의 사건과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것이 통(通)성경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첫째 방법이다.

개인·가정·나라를 통(通)으로

통(通)으로 성경을 보는 둘째 방법은 ‘개인·가정·나라를 통(通)으로’ 보는 것이다.³⁵ 성경은 개인, 가정, 나라 이야기를 담은 책³⁶이기 때문에 성경의 사건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관점에서, 그리고 가정과 나라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성경의 사건들을 개인의 이야기로만 또는 가정의 이야기로만 또는 나라 이야기로만 봐야 되는 경우는 단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건들은 개인과 가정과 나라 이야기가 함께 묶여 있다.

구약의 경우, 모세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 설명하는 조병호의 말을 들어보자.

모세가 태어난 지 3개월째 되던 시점에 갈대 상자에 놓인 것은 모세 개인의 일

³⁵ Ibid., 12.

³⁶ 조병호, *통성경학교* (서울: 통독원, 2015), 36.

이다. 동시에 그것은 모세의 아버지가 그 갈대 상자를 만들었고, 어머니가 그를 그 안에 태웠으며, 누나가 갈대 상자를 따라가면서 망을 뚫으로써 완벽하게 뜻이 잘 맞고 화목한(?) 모세의 가정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그렇게 가정 내에서 문제가 없고 마음이 하나였던 그 가정이 어린 모세를 죽을 확률 99.9%인 갈대 상자에 태워 나일 강에 떠내려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 가정이 히브리 민족이라 불릴 만큼 하나의 민족은 이루고 있었으나 나라를 가지 못했기 때문이다.³⁷

조병호는 신약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개인·가정·나라에 관한 이야기이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은 예수님 개인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한 가정 이야기이다. 동시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신 것은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모든 식민지 백성들에게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즉 로마 제국과 유대 나라 이야기가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 이야기와 함께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성경 속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개인·가정·나라 이야기로 함께 통통으로 보아야 한다. 그것이 통통성경이다.³⁸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내용을 개인과 가정의 이야기로 국한시켜 보는 경향이 짙다. 이것은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그려가야 하는 큰 그림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³⁹ 또한 성경의 사건들을 개인과 가정의 이야기로 보는 것이 쉽고, 적용하기에도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성경의 사건에서 나라 이야기를 발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세와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개인과 가정 이야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나라 이야기를 빼버린다면, 어떻게 모세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해의 시작도 못하고 엉뚱한 해석과 적용을 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러하기에 성경의 사건들은 반드시 개인과 가정과 나라 이야기를 통으로 묶어서 봐야 한다.

³⁷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12.

³⁸ Ibid.

³⁹ 조병호는 그의 책 *통성경학교* 14쪽에서 5세부터 20세까지 큰 그림 3가지를 그릴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3가지 큰 그림은 ‘하나님 마음’, ‘하나님 나라’, ‘모든 민족’이다.

제사장 나라·5대 제국·하나님 나라를 통(通)으로

통(通)으로 성경을 보는 셋째 방법은 ‘제사장 나라·5대 제국·하나님 나라를 통(通)으로’ 보는 것이다.⁴⁰ 이 부분과 관련한 조병호의 말을 들어보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 하나님과 맺은 이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고, 거룩한 시민의 일도 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5대 제국을 하나님의 세계경영에 들어 사용하신 것이다. <이사야>는 앗수르 제국을, <예레미야>는 바벨론 제국을, <에스라>는 페르시아 제국을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성경 속 명절인 수전절은 헬라 제국과 깊은 관련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사형 틀이기에 신약성경과 로마 제국은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 중에 5대 제국을 들어 사용하시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시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하신 것이다.⁴¹

구약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세워가시는 제사장 나라의 이야기이고, 신약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그 순간에 제사장 나라가 온전히 담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이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로 온 세상을 경영하실 때 5대제국을 사용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 나라·5대 제국·하나님 나라를 통(通)으로 이해해야 한다.⁴²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이야기의 세계사적 배경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어렵게 느낄 수 밖에 없다. 구약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구약성경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애굽과 앗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알게 되

⁴⁰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12.

⁴¹ Ibid., 12-13.

⁴² Ibid., 13.

면, 이러한 제국들을 도구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어떻게 경영해 가셨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헬라제국을 이해하면 신구약 중간사 400년의 역사를 정리할 수 있으며, 로마제국을 알게 되면 신약의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애굽을 모르고서 어찌 출애굽과 제사장 나라의 시작을 알 수 있겠는가? 앗수르 제국을 모르고서 어찌 요나서와 나훔서 그리고 사마리아인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바벨론 제국을 모르고서 어찌 예레미야의 사역과 남유다의 멸망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페르시아 제국을 모르고서 어찌 스룹바벨과 성전재건, 그리고 느헤미야와 성벽 재건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헬라 제국을 모르고서 어찌 유대인들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로 분판된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로마 제국을 모르고서 어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사도바울의 전도여행, 그리고 공동서신서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제사장 나라·5대 제국·하나님 나라를 통(通)으로 묶어서 이해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통(通)성경이란?

성경의 큰 그림 7개

 앞장에서는 통(通)성경의 방법론 3가지를 살펴보았다. 이장에서는 통(通)성경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한다. 조병호는 성경 전체를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두 개의 큰 그림과 7개의 트랙과 분위기로 정리했는데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트랙1.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모세 시대에 형성되는 제사장 나라 set-up 분위기 ⇒ 모세5경 (창, 출, 레, 민, 신)과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 트랙2. 제사장 나라를 두고 왕과 선지자들이 대립하고 협력하는 분위기 ⇒ 왕정 500년 (역사서와 예언서)

- 트랙3. 페르시아 제국의 도움 속에서 제사장 나라를 실현해가는 분위기 ⇒ 페르시아 7권 (단, 학, 숙, 스, 예, 느, 말)
- 트랙4. 하나님의 침묵 속에 구약성경의 세계화와 유대 분파가 형성되는 분위기 ⇒ 중간사 400년
- 트랙5. 세례 요한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 set-up 분위기 ⇒ 4복음서 (마, 막, 눅, 요)
- 트랙6. 대제사장들과 사도들의 대립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는 분위기 ⇒ 사도행전 30년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서)
- 트랙7.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가는 분위기 ⇒ 공동서신 9권 (히, 약, 벧전, 벧후, 유, 요일, 요이, 요삼, 계)⁴³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구약을 3개의 트랙(track)으로, 신약을 3개의 트랙으로, 그 사이 신구약 중간사를 1개의 트랙으로 하여 성경전체를 7개의 트랙으로 정리한 것이다. 구약의 트랙인 ‘모세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은 모두 ‘제사장 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분위기를 정리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트랙인,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은 모두 ‘하나님 나라’를 배경으로 하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분위기를 정리해야 한다. 성경전체에 나타나 있는 7개의 다른 분위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으면,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로 온 세상을 경영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릴 수 있게 된다.

성경공부의 7스텝

성경 전체를 7개의 트랙을 통해,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으로 정리한 조병호는 7개의 트랙을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한 방법으로 7개 스텝을 제시한다. 7개의 스텝은 그 순간 이야기, 성경을 통한 영성 이야기,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나님의 마음 이야기, 40개의 성경 즐기 이야기, 하나님의 사람들

⁴³ Ibid.

의 기도 이야기, 전도 이야기 등이 그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Pre-Step1 - 그 순간 ('다 이루었다' &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 이야기)

- '다 이루었다' 그 순간, 왜 성전 휘장이 찢어졌는가?
- 움직이는 성막 500년
- 예루살렘 성전 1000년
- 그 순간, 제사장 나라 그릇이 더 큰 하나님 나라 그릇에 담긴다.
- 그 순간 이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Pre-Step2 - 성경과 영성 (성경을 통통한 영성 이야기)

- 성경: 얇은 책, 소리내서 읽을 책, 1년 10번 들을 책, 하나님 마음이 담긴 책
개인·가정·나라 이야기를 담은 책
- 영성: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하고, 영광 돌린다.

Step1 -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7개 질문 중심의 나라 이야기)

- 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으려 노력했는가?
⇒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되고 싶기 때문에
- 왜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는 왕과 대립했는가?
⇒ 왕의 통치가 제사장 나라 기준에 못 미쳤기 때문에
- 왜 스룹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는 동시대 동족들에게 존경받았는가?
⇒ 유대인들이 제사장 나라가 제국을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 왜 유대인은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로 분파되었는가?
⇒ 무엇보다 마음을 잃어버린 형식주의 때문에
- 왜 예수님은 사두개파, 바리새파보다 세리와 창기를 친구로 여기셨는가?
⇒ 세리와 창기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 왜 대제사장 세력들은 스테반, 야고보를 죽이고 바울을 30년 동안 때렸는가?
⇒ 사도들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끝났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 왜 로마는 470명의 군인을 동원해 바울을 경호해주다가 죽였는가?
⇒ 로마 대화재 사건의 범인으로 기독교를 지목했기 때문에

Step2 - 하나님 마음 (66권 경전을 통통한 하나님의 심정 이야기)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세대, 신앙계승, 천년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의 줄 사명의 줄, 절망 앞에 선 희망, 징계 희망의 디딤돌, 재건공동체,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기쁨을 위한 탄생, 한 영혼 사랑, 용서를 향한 열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 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면류관 남겨진 부탁,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Step3 - 성경 즐기 (40개의 성경 즐기 이야기)

원역사, 족장사, 입애굽과 민족, 출애굽과 제국, 세계 선교의 꿈-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 만나세대, 만나학교 졸업, 약속의 땅 입성,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 교육의 성공 사례, 미스바세대, 왕정의 시작, 하나님의 종 다윗, 솔로몬과 시가서, 남북 분열 왕조, 북이스라엘 멸망, 남유다 멸망, 잠깐의 징계, 포로민 설득, 제국 변동의 밑그림, 성전 재건, 성벽 재건, 고백과 침묵,

헬라 제국과 중간사, 로마제국과 중간사, 예수님 탄생, 공생애 3년, 마지막 일주일, 십자가 승리-하나님 나라, 열리는 제자시대,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바울의 3차 전도여행, 바울의 예루살렘여행, 교회론과 사랑의 편지, 기독교론과 기적의 편지, 믿음의 아들에게 남긴 편지,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최후 승리의 노래

Step4 - 성경을 통(通)한 기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 이야기)

엘리에셀의 기도, 모세의 기도, 한나의 기도, 다윗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 예레미야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시므온의 기도, 바울의 기도

Step5 - 유대인과 패밀리 스쿨 (전도 이야기)

모세-나라 세우기, 다윗-민족 통일하기, 사마리아인과 앓수르 제국, 유대인과 바벨론 제국,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페르시아 제국,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디아스포라 그리스인과 헬라 제국, 기독교 유대인과 로마 제국⁴⁴

조병호는 7개의 스텝을 2개의 프리스텝과 5개의 메인스텝으로 구성했다. 2개의 프리스텝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 할 수 있는 ‘그 순간 이야기’와 ‘성경을 통(通)한 영성 이야기’로 구성했으며, 메인스텝 5개는 ‘나라 이야기’, ‘하나님의 마음 이야기’, ‘성경 즐기기 이야기’, ‘성경을 통(通)한 기도 이야기’, ‘성경을 통(通)한 전도 이야기’로 구성했다.

7개의 스텝은 ‘통(通)성경학교’의 중요 커리큘럼으로 교육되고 있으며, ‘통(通)성경학교’ 10주 과정에 총 30강의 내용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다. 통(通)성경학교’ 10주 30강 커리큘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통성경학교 커리큘럼⁴⁵

주	STEP	강의 주제
---	------	-------

⁴⁴ Ibid., 14-15.

⁴⁵ 조병호, 통성경학교, 5.

1주	Pre-Step1, 2 그 순간, 성경과 영성	1강: 왜 5세인가? from infancy 2강: Pre-Step1 - 그 순간 3강: Pre-Step2 - 성경과 영성
2주	Step1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 7가지 질문	1강: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2강: 7Questions I 3강: 7Questions II
3주	Step2 하나님 마음	1강: 성경통독 1-5과 2강: 성경통독 6-11과 3강: 성경통독 12-20과
4주	Step3 성경 줄기I: 모세5경	1강: 통통성경 길라잡이 1-4과 2강: 통통성경 길라잡이 5-8과 3강: 통통성경 길라잡이 9-11과
5주	Step3 성경 줄기II: 왕정 500년	1강: 통통성경 길라잡이 12-14과 2강: 통통성경 길라잡이 15-17과 3강: 통통성경 길라잡이 18-19과
6주	Step3 성경 줄기III: 페르시아 7권, 중간사 400년	1강: 통통성경 길라잡이 20-21과 2강: 통통성경 길라잡이 22-24과 3강: 통통성경 길라잡이 25-26과
7주	Step3 성경 줄기IV: 4복음서	1강: 통통성경 길라잡이 27과 2강: 통통성경 길라잡이 28과 3강: 통통성경 길라잡이 29-30과

8주	Step3 성경 줄기V: 사도행전30년, 공동서신9권	1강: 통통성경 길라잡이 31과 2강: 통통성경 길라잡이 32-38과 3강: 통통성경 길라잡이 39-40과
9주	Step4 성경을 통(通)한 기도	1강: 성경 기도 이야기 I 2강: 성경 기도 이야기 II 3강: 성경 기도 이야기 III
10주	Step5 Family School: 이야기 전도	1강: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사람 2강: 5대 제국과 유대인 이야기 3강: 예루살렘 성전과 5대 제국

지금까지 살펴본 통(通)성경의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성경을 시간·공간·인간을 통통으로, 개인·가정·나라를 통통으로, 제사장 나라·5대 제국·하나님 나라를 통통으로, 7개 트랙과 7개 스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둘째, 성경을 파편화 (fragmented books and multiple disconnected stories)하지 않고 66권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One Story)로 모든 부모가 5세부터 20세 전 자기 자녀에게 쉽고, 재미있고, 이어지는 이야기로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가르칠 수 있는 성경을 말한다.”⁴⁶ 이다.

‘성경을 파편화하지 않고 66권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이해한다는 것은 ‘성경을 부분이 아닌 전체로 보는 것’⁴⁷ 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성

⁴⁶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15.

⁴⁷ Ibid., 16.

경을 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부분으로 보고 편식함으로, 성경 본래의 의미 보다는 성경을 읽는 사람의 주관적인 관점에 따라 읽고 생각하고 해석한다. 또한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가치관과 이념에 따라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성경을 취사선택 하고, 성경의 해석과 적용까지도 편향적으로 해오고 있다. 우리 인생의 거울인 성경에 삶을 비추기 보다는 자신의 이념적 성향과 주장을 뒷받침하는 도구로 성경을 인용하고 사용한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일부분의 성경 구절만을 선택하여 읽어 왔는데,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파편화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조병호는 하나의 이야기인 성경 전체 사건을 역사 순으로 재배열하여 5세부터 20세까지의 자녀들에게 쉽고 재미있고 이어지는 이야기로 전해야 함을 강조한다. 자녀들에게 요절 몇 구절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몇 개의 요절만을 가지고 집중하는 구절병을 이겨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요절보다 큰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줘야 한다는 것이다.⁴⁸

실제로 조병호는 ‘하나의 이야기’인 성경전체를 부모가 자기 자녀들에게 설교가 아닌 이야기로 들려줄 수 있도록, 부모를 대상으로 한 ‘Family School을 위한 통(通)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통(通)성경학교와 자녀에게 ‘하나의 이야기’인 성경을 이야기로 가르치는 것과 관련해서 “부모들이 먼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되면 자식이 만5세 되기를 기다렸다가 큰 그림 보여주기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기적이지 않은 아이, 이웃과의 나눔을 아는 아이, 나

⁴⁸ 조병호, *통성경학교*, 17.

라와 나라 사이의 평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아이로 길러내야 합니다.”⁴⁹ 라고 말한다.

이야기만큼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교육 방법은 없다.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하나의 이야기’ 인 성경 전체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아이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이야기로 들려준다면 그 결과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다. 이렇게 부모로부터 성경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큰 그림을 그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⁴⁹ 조병호, *유대인파 패밀리스쿨* (서울: 통독원, 2015), 142.

제 III 장

듣는 성경

앞의 II장에서는 통(通)성경 방법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 III장에서는 통(通)성경 방법론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듣는 성경’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특별히 ‘듣기(Listening)’를 통한 방법이 어떤 면에서 효과적이며, 실용적인지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계획이다. 먼저 청각적 환경과 듣기의 중요성을 다뤄보고, 듣는 성경의 성경적 근거, 신학적 근거, 목회적 근거를 다루고자 한다.

청각적 환경과 듣기의 중요성

태아와 듣기

태아에게 있어 가장 먼저 발달하는 감각 기관은 귀다. 귀의 아인슈타인으로 일컬어지는 프랑스의 유명한 의사 알프레 토마티의 연구에 의하면, 태아의 달팽이관은 수정 후 4개월 반 만에, 즉 135일 만에 완전한 크기로 자란다고 한다. 우리 몸의 다른 기관이 10대 후반까지 계속 성장하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달팽이관의 성장은 굉장히 빠르다. 실제로 4~5개월 된 태아는 소리와 음악의 자극에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

¹ Thoms Verny, *The Secret Life of the Unborn Child* (New York: Dell Publishing Company, 1981), 21.

태아가 수정된 지 135일 만에 달팽이관이 완전한 크기로 자란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태중에 있는 태아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듣는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태아에게 있어서 소리와 듣기는 구조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밖에 없다.

산모 뱃속의 태아가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는 산모의 아이들은 모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는 산모의 아이들은 모두 늦게 잔다’²는 조사 보고서가 있다. 태중에 있는 태아는 산모의 목소리가 들리면 활동을 시작하고, 산모가 잠을 자는 동안에는 활동을 쉬게 된다. 이런 상황이 수개월 동안 반복되다보니 태어난 이후에도 어머니의 생활 패턴을 따르게 되는 것이다.

토마티는 또한 임신초기 3개월 정도 된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엄마가 말하는 영어소리를 들었던 구체적 사례를 통해 태아는 4개월 반이 되기 전에, 즉 귀가 완성되기 전에 이미 듣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냈다.³

토마티는 인공자궁의 환경을 만들어 ‘태아가 뱃속에서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를 실험했다. 실험결과 자궁 안에서 어머니의 숨 쉬는 소리, 심장 박동소리, 내장이 움직일 때 나는 소리와 같은 낮은 주파수대의 소리는 양수가 그 소리를 걸러 내기라도 하듯이 급격히 감소하고, 오직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인 어머니의 목소리만 들렸다.⁴ 위의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태중에 있는 태아가 귀로 소리를 듣는데, 모든 소리를 차등 없이 듣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목소리를 더욱 분명하게 듣는다는 것이다.

소리는 공기 보다 물속에서 4배나 빠른 속도로 전달되며 금속에서는 15배나

² Ibid., 73.

³ 서정록, *잃어버린 지혜 듣기* (서울: 샘터, 2014), 41-42.

⁴ Paul Madaule, *When Listening Comes Alive: A Guide to Effective Learning and Communication* 2nd Edition (Toronto: The Listening Centre, 1994), 72.

빠른 속도로 전달된다. 외부의 소리는 어머니의 배를 통과하여 양수를 지나 태아에게 전달되는 동안 줄어들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척추를 지나 골반에 전해지는 동안 오히려 증폭된다. 그러므로 태아에게 전달되는 소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어머니의 목소리 일수 밖에 없다. 실제로 태아가 소리를 듣는 모습을 보면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자신의 몸을 척추뼈에 기대는다고 한다.⁵

토마티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소리의 탯줄’에 비유했는데, 어머니의 목소리야말로 아이의 발육과 뇌의 충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⁶ 이것과 관련하여 티모시 길모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태아는 뱃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를 기다린다.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기뻐한다. 그리고 다시 어머니의 목소리를 기다린다. 마침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면 기뻐한다. 이렇게 기다림과 기쁨은 반복된다. 토마티는 이 과정을 ‘자궁 속의 대화’라고 부른다. 최초의 듣기가 시작되는 것은 바로 이 과정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태어난 후에도 계속된다. 나중에 발달하는 대화 기술, 언어 습득, 학습 능력, 특히 사회 적응 등은 이 초기의 듣기의 질에 달려 있다.⁷

인디언들의 경우에도 태아가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인디언들의 태교의 핵심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듣기’이다. ‘듣기’는 태교뿐만 아니라 인디언 문화와 교육 전반의 핵심 코드라고 할 수 있다. 인디언들이 ‘듣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태아에게 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효과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⁸

현대 과학에서는 태아는 자궁 속에서 한 달이 지나면 이미 내이에 전해지는 소

⁵ 서정록, *잃어버린 지혜 듣기*, 51.

⁶ Ibid., 52.

⁷ Joshua Leeds, *Sonic Alchemy* (Wisconsin: Hal Leonard, 1997), 35.

⁸ 서정록, *잃어버린 지혜 듣기*, 27.

리 에너지를 분류할 수 있다고 한다.⁹ 이것은 태아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태아는 자궁 속에서 느끼고, 지각하고, 기억하고, 경험을 통합한다. 이때 태아 의식의 중추를 이루는 것은 귀이다. 왜냐하면 뇌의 신경체계는 귀가 들은 소리를 기록하고 기억하기 위해 활동함으로써 발달하기 때문이다.¹⁰

반면, 눈은 출생 후 몇 달이 지나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므로 태아 상태일 때는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태아는 사실상 귀의 청각을 통해서 어머니와 교감하고 외부와 소통을 한다.¹¹

소리를 연구하는 조슈아 리즈는 이렇게 말한다.

알프레 토마티에 의하면, 귀의 첫 번째 목표는 태아의 뇌의 성장을 돕는 것이라고 한다. 때문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은 영양을 공급해주는 태아의 필요성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리고 아이가 탄생하게 되면, 귀의 기본 기능은 뇌의 신경질을 충전시키는 것이며, 그로부터 뇌신경 전체가 활성화된다. 토마티 박사가 볼 때, 소리는 일종의 정신적 자양분인 셈이다. 우리가 소리 주파수의 완전한 스펙트럼을 소화해 내지 못하면, 위의 음식물을 소화하지 못할 때 생기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한다. 양자의 차이가 있다면 음식은 신체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반면에, 귀에 의해서 소화된 음파는 뇌를 충전시키는 전기적 자극을 공급하는 것이다.¹²

보통 우리는 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듣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런데, 토마티는 귀의 첫 번째 목표는 듣는 것이 아니라, 태아의 뇌가 성장하도록 돕는데 있다는 것이다. 태아가 듣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태아의 뇌의 성장을 돕는다고 한다. 태아를 통해 공급된 영양분은 신체를 자라게 하지만, 두뇌의 발달은 귀를 통해 공급된 소리 영양분을 통해서라는 토마티의 주

⁹ Alfred Tomatis, *The Conscious Ear: My Life of Transformation through Listening* (New York: Station Hill Press, 1991), 209.

¹⁰ Ibid., 212.

¹¹ 서정록, *잃어버린 지혜 듣기*, 44.

¹² Leeds, *Sonic Alchemy*, 34.

장은 태아에게 있어 소리 듣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를 충분히 인식하게 해준다.

이 부분과 관련해 토마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귀의 기능 중의 하나는 뇌를 충전시켜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소리를 감지하는 귀는 전기적 전위를 가지고 신체의 기관을 충전시키는 데 봉사한다. 외부의 자극들이 뇌의 신경질을 충전시킬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귀 덕분이다. 우리가 신경의 영역이라고 부르는 뇌의 메커니즘은 자극에 의해서 충전된다. 이 자극은 피부와 관절과 근육, 그리고 외부로부터 우리의 몸에 들어오는 수 천 가지의 것들을 통해서 온다. 그러나 이 자극을 모아 뇌에 전하는 것은 귀이다. 관절과 근육 그리고 몸의 자세는 내이의 미로와 연결되어 있다. 우리 몸의 균형을 통제하는 것은 내이의 평형고리관이다. 나는 이 메커니즘이 뇌의 신경질 충전의 60%를 담당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대략 30% 정도는 달팽이관에서 처리되는 소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에 의해서 충전된다. 이처럼 귀는 뇌에 필요한 충전 에너지 90% 내지 95%를 담당하고 있다.¹³

귀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만이 아니라 뇌를 충전시켜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는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의 뇌는 각종 정보를 분석하여 몸과 정신에 보낸다. 그런데 뇌는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외부의 에너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 에너지원은 크게 세 가지이다. 하나는 공기 중의 산소이고, 다른 하나는 음식물의 영양분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리와 운동이다. 소리와 운동은 모두 진동 또는 파동이다. 이 소리와 운동을 관장하는 기관이 바로 귀이다. 그런데 귀가 소리를 통해 뇌를 자극하고 충전하는 방식은 산소나 음식물과 다르다. 훨씬 더 미묘하고 신비롭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뇌의 발달과 정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¹⁴

태아의 뇌에 필요한 충전에너지의 90~95%를 귀가 담당한다는 사실은 놀랍다. 태아에게 있어 귀는 절대적인 요소인 셈이다. 또한 귀를 통해 태아의 뇌에 전달되는

¹³ 서정록, *잃어버린 지혜 듣기*, 47-48.

¹⁴ Ibid., 48.

소리의 대부분이 어머니의 목소리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결국 태중에 있는 태아의 뇌 발달과 성장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어머니의 목소리이다. 태아는 어머니의 목소리만을 듣고 자란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며, 그러하기에 자신의 귀를 어머니의 중추에 갖다 대면서까지 어머니의 소리를 정확하게 들으려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태아에게 있어 듣기가 태아 성장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유아와 듣기

갓 태어난 유아들이 말을 배우는 과정은 소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모든 유아들은 자라면서 소리로 모든 것을 습득한다. 언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정적, 사회적 관계도 소리를 통해 학습을 하게 되고 문화도 소리를 통해 배우게 된다.

윤재성은 인간이 언어를 습득하는 방식은 ‘소리’를 통한 방식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책 ‘소리영어’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영어를 언어로써 익힐 때 ‘외우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방법입니다. 외우라는 말이 소리가 아닌 글을 외우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글이 아닙니다. 언어의 본 모습은 바로 ‘소리’입니다. 문맹율이 높은 나라일지라도 말을 못 하는 사람은 없고, 우리의 조상들도 책을 읽진 못했을지언정 말은 자유롭게 했습니다. ‘문맹은 있지만 언맹은 없다’는 말이 바로 이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 언어, 즉 모국어를 글로 익힌 사람은 없습니다. 외국어인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 배워서 는 절대로 원어민처럼 유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모국어도, 외국어도 반드시 ‘소리’로 익혀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말과 영어의 어순이 달라서도 아니고, 어릴 때 배우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갓난아이가 모국어를 습득할 때 엄마의 음성을 반복해 듣고 말을 따라 하면서 배웠듯이, 영어도 제대로 익히기 위해서는 소리를 듣는 일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껏 영어의 소리를 선명하게 듣지 못한 채 단어나 문법부터 외웠습니다. 그러기에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¹⁵

¹⁵ 윤재성, *윤재성의 소리영어* (서울: 스토리, 2014), 9-10.

김현아는 ‘유아들에게 동화 들려주기가 유아의 창의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와 또한 ‘동화 들려주기의 효과가 유아의 성별, 연령, 지능 등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동화 들려주기를 실시하였던 유아들에게서는 창의성과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요인 전반에 걸친 증진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증진은 실험 대상 유아의 성별, 연령, 지능에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동화 들려주기가 유아기의 광범위한 적용 가능성을 가진 프로그램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¹⁶

유아기 시절에 동화를 들려주면 유아의 성별, 연령, 지능에 상관없이 창의성과 독창성 개발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유아기 시절에 아이의 ‘듣기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유아기 시절부터 길러진 듣기 습관이 똑똑한 아이가 되는 지름길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맘 & 앙팡” 2013년 2월호에 실린 ‘듣기 교육이 먼저다(똑똑한 아이로 키우려면)’라는 아티클에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있다.

갓난아이가 언어와 소리를 구분할까 싶지만 인간은 실제로 이런 능력을 타고난다고 한다. 뇌의 관자엽은 소리를 듣고 소리의 크기나 높낮이를 구분하며, 언어를 이해하고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역이다. 생후 3~4개월 아이의 관자엽에서는 시냅스 증가와 수초화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이는 생후 12개월까지 지속된다. 즉 실제로 아이가 소리를 주워담아 언어를 발달시킬 수 있도록 뇌 발달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생후 1년까지의 청각 발달이 언어 발달의 기반이 되므로 이 시기에는 아이의 청각 자극에 특히 신경써야 한다. 이후 성인과 비슷한 수준의 청력이 갖춰지는 시기는 만5세 무렵으로 그때까지 부모가 아이의 연령에 맞춰 듣기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좋다.¹⁷

태중에 있는 태아들뿐만 아니라 유아기의 아이들에게도 청각을 통한 소리 듣기

¹⁶ 김현아, “동화 들려주기가 유아의 창의력 증진에 미치는 효과,” 1 *한국창의력교육학회* (1997).

¹⁷ 오정립, “듣기 교육이 먼저다(똑똑한 아이로 키우려면),” 2 *맘 & 앙팡* (2013).

가 뇌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청각(듣기)과 시각(읽기)의 비교

지금까지 태아와 유아들에게 있어서 듣기가 어떤 효과와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듣기와 읽기의 효과를 비교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저스트 교수는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을 이용하여 동일한 자료를 읽는 것과 듣는 것의 차이가 있음을 알아 냈는데, 그는 영상측정을 통해 순간 순간의 변화를 나타내는 칼라 시각지도(heatmap)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 지도에는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이 등장한다. 첫째, 읽기에서는 뇌의 우반구가 생각보다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았다. 둘째, 듣기에서는 좌반구의 삼각영역에서 활동이 증가한다. 이 영역은 19세기 신경학자 폴 브로카의 이름을 따서 브로카 영역이라고도 하는데, 말과 언어를 처리하는 영역 가운데 하나이다. 브로카 영역은 언어 정보를 마음에 새겨 둘 필요가 있을 때마다 즉각 행동을 개시한다.¹⁸

다시 말해, 동일한 자료를 읽을 때와 들을 때 뇌의 반응과 활동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자료를 읽을 때에는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았던 뇌의 브로카 영역이 동일한 자료를 들을 때에는 활발하게 활동했다. 브로카 영역이 언어 정보를 마음에 새겨 둘 필요가 있을 때 활동하는 영역이기에 어떤 자료를 귀로 듣게 되면 기억함에 있어 효과가 좋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새로운 뇌”라는 책에서 리처드 레스탁은 저스트 교수의 실험을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¹⁸ Richard Restak, *The New Brain: How the Modern Age Is Rewiring Your Mind*, 임종원 역, *새로운 뇌* (서울: 휘슬러, 2004), 176.

이 두 가지 사실은 동일한 자료에 대한 읽기와 듣기의 차이를 생각하면 충분히 설득력 있는 발견이다. 언어는 일정한 형태로 기록할 경우 필요할 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처리와 기억이 더 쉽다. 그러나 입으로 말하는 언어는 아주 순간적으로 공중에 떠돌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 그 결과 뇌는 구두로 이야기한 문장의 첫머리 단어들을 저장한 다음, 그 뒤에 이어지는 단어들을 마음속으로 연결시킨다. 문장의 첫머리를 들으면서 그 다음의 내용을 연속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것도 재생회로의 매끄러운 작동 덕분이다.¹⁹

다시 말해, 글로 읽혀지는 이야기는 언제든 다시 읽을 수 있는 소멸 가능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뇌의 활동이 활발하지 않지만, 소리로 들려지는 이야기는 공중으로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 내용을 놓치지 않기 위해 뇌가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것이다. 지식과 정보를 습득함에 있어 글을 읽는 방법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소리로 듣는 방법은 효과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유아기의 아이들은 보통 그림이 있는 동화를 즐겨 보게 된다. 전혀 글을 알지 못하는 유아라 할지라도 그림만을 보고도 흥미를 느끼며 동화의 내용에 집중한다. 그렇다면 유아들의 창의성 개발과 관련해서 아이들이 즐겨보는 그림 동화와 같은 시각적인 환경과 그림이 없는 동화를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청각적인 환경 중에서 어떤 환경이 더 효과적일까?

서경희는 만 5세 유아 30명을 대상으로 ‘그림 없는 동화를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실험’을 진행한 결과 그림 없는 동화 반복 듣기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창의성을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유창성, 독창성, 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에서 유아의 창의성을 발달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²⁰

서경희는 그의 논문 결론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¹⁹ Ibid.

²⁰ 서경희, “그림 없는 동화 반복 듣기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2011), 49.

그림 없는 동화 반복 듣기활동은 유아들에게 그림의 틀에 갇히지 않고 매일 매일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고정관념을 탈피할 수 있는 자유로운 상상력을 촉진함으로써 유아는 자신만의 자유로운 상상을 통하여 주어진 환경을 다양하게 지각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 나가게 되며, 이러한 상상이 창의성 개발을 능동적으로 유도해 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그림 없는 동화의 경우 다른 후속활동 없이 단지 동화를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활동만으로도 유아의 창의성 발달에 효과가 있으므로 그림 없는 동화 반복 듣기활동 그 자체가 유아의 창의성을 발달시키는 좋은 교수매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²¹

다시 말해, 유아들에게 시각적 효과를 주는 그림동화를 보여주는 것보다 그림 없는 동화를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것이 창의성 발달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림 없는 동화를 반복적으로 듣는 유아들은 그림동화를 보는 유아들과는 달리 그림의 틀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동화의 내용을 상상할 수 있고, 그 상상력이 창의성 개발을 능동적으로 유도해내기 때문이다.

유아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똑같은 내용의 영화나 드라마를 영상화면을 통해 시청하는 것과 라디오를 통해 오디오 드라마로 듣는 것은 많은 차이를 가져다 준다. 영상화면을 통해 보게 되면 상상력의 범위가 눈에 보여지는 장면들 안에 갇히게 되지만, 반면 오디오 드라마로 듣는 경우에는 장면 장면들을 귀로 듣고 마음껏 상상할 수 있게 된다. 영화나 드라마의 장면이 더 긴박하고 스펙타클한 경우에는 더더욱 상상력의 차이는 커지게 된다. 때로는 시각적인 효과들이 상상력을 제한시키는 반면에, 청각적인 효과들은 상상력을 극대화 시키게 된다.

아이들 교육에 있어 시각적 교육보다는 청각적 교육이 효과가 높다는 사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각적 교육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고서들이 있다. 윤석천은 학습비디오의 강한 시각적인 자극이 어린 아이들에게

²¹ Ibid., 50.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부분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2세 이하 아이들의 경우 학습비디오의 강한 시각적인 자극 때문에 자폐증 초기 증상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엄마와 눈 마주치기를 거부하는 현상이 20~30% 정도 된다는 보고와 ‘사이버시대 가족관계 흔들린다’는 일간지 기사는 삶의 기초인 가정까지도 흔들 수 있는 시각주도적 경향이 주는 심각한 피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기술과 기계와 과학의 결합체인 사이버공간의 현란한 발전과 확장 속에서 역설적으로 인간 삶의 기초이며, 들려주고 듣는 신앙의 근간이 되어야 할 가정까지도 흔들린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시각주도적 경향의 근원적인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²²

김영미는 그의 책 ‘초등 듣기능력이 평생성적을 좌우한다’에서 책 읽기의 효과를 보완할 수 있는 이야기 듣기의 중요성을 언급하는데,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책 읽기에 비해 이야기 듣기는 아주 편안하다. 특별히 긴장하고 정신을 집중하지 않아도 된다. 가끔은 그다지 재미없는 이야기도 분위기에 따라 아주 재미있어진다. 게다가 들은 얘기를 나만의 스타일로 각색하여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재미도 쏠쏠하다. 이것이 바로 ‘이야기 듣기’이다. 어린 시절을 추억해 보라. 비 오는 날 큰 오빠가 동생들을 모아 놓고 해주던 온갖 귀신 이야기들. 지금 생각해도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진다. 오빠가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하며 다리를 ‘꼭’ 잡으면 혼비백산해 울음을 터트리면서도 또 “내 다리 얘기해줘.” 하며 조르곤 했을 것이다. 이렇게 단순히 재미로 듣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야기를 듣는 사이 저절로 교훈이나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다.²³

듣기와 커뮤니케이션

19세기의 과학자이며 철학자인 로렌츠 오킨은 “눈은 우리를 바깥 세계로 데려가고, 귀는 세계를 인간에게로 가져온다”²⁴고 말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눈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고, 귀를 통해 세상을 자기 안으로 가져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귀는 사람의 신체부위 중에서 세상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소중한 통로인

²² 윤천석, “사이버시대와 시각주도적 감성에 대하여,” 6 *조직신학연구* (2005), 80-81.

²³ 김영미, *초등 듣기능력이 평생성적을 좌우한다* (서울: 글담출판사, 2009), 154.

²⁴ Joachim-Ernst Berendt, *The Third Ear: On Listening to the World* (New York: Holt & Company, 1988), 12.

셈이다. 사람들이 타인을 비롯해 세상과 소통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은 귀를 통해 소리를 듣는 것이다.

세익스피어가 “모든 사람에게 너의 귀를 주어라. 그러나 너의 목소리는 단 몇 사람에게만 주어라. “ 라고 한 충고는 사람들과 원만히 지내기 위한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면, 그 일의 성패는 자신이 듣기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달려 있다. 미국의 니콜스와 스티븐슨의 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은 듣기 42%, 말하기 32%, 읽기 15%, 쓰기 11%의 비율로 자신의 시간을 할애한다고 한다.²⁵

위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듣기에 투자하는 시간이 쓰기의 4배, 읽기의 약 3배 정도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사람이 대외적으로 활동할 때 듣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은 듣기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듣기에 실패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효과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말하는 시간 비율을 줄이고 듣는 시간 비율을 늘려야 한다.

듣는 성경의 성경적 근거

성경과 듣기

성경 전체를 보면 듣기와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대략 1,500여 번 가까운 듣기와 관련된 말이 등장한다. 그 중에 ‘들으라’ 는 모두 100회 이상, ‘소리’ 500회, ‘목소리’ 100회, ‘음성’ 100회, 귀는 200회 이상, ‘들음’ 은 10회 이상 나온다. 특별히 ‘들으라’ 는 표현이 사용된 경우에는 대부분 하나님의

²⁵ 박준수, *성공을 부르는 말 실패를 부르는 말* (서울: 시간과 공간사, 2001), 115.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으로 읽거나 손으로 기록하기 보다는 귀로 들어야 함을 강조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1,500여번에 달하는 ‘듣기’ 관련된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잘 드러내는 말씀을 몇 군데 살펴보고자 한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의 출생 이야기가 나온다. 출생한 지 3개월 된 모세는 죽을 확률이 99.99%인 갈대상자에 태워지게 된다.²⁶ 모세가 갈대상자에 태워지게 된 이유는, 엄마가 태웠고, 히브리인들이 민족은 있으나 나라가 없었기 때문이었고, 애굽이 제국주의를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시기를 결정하셨기 때문이었다.²⁷ 갈대상자에 태워진 모세는 애굽 공주의 손에 들려지게 되고, 젖을 뱉 때까지 친엄마가 유모가 되어 모세를 키우게 된다. 이때 친엄마 요게벳은 모세가 젖을 뱉 때까지 그의 귀에 이야기를 해줌으로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심어 주었을 것이다. 모세는 친엄마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자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던 것이다. 그만큼 어린 시절에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하다.

모세의 뒤를 이어 만나세대를 이끌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수 1:8) 고 말씀하셨다. 율법책을 손이나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말씀을 소리 내서 읽으라는 의미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남겨준 율법책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당부하시면서 그에게 용기와 힘을 주신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과 라합의 이야기가 나

²⁶ 조병호, *그 순간* (서울: 통독원, 2015), 18.

²⁷ Ibid., 15.

온다. 라합은 2명의 정탐꾼에게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수 2:10~11)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라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 할 때와 요단 동편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다. 라합의 이 믿음은 눈으로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책으로 읽은 것도 아니다. 귀로 듣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던 것이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린 후에, 꿈속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구한 것은 다름 아닌 듣는 마음이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왕상 3:9). 솔로몬의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며 솔로몬이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신다. 솔로몬은 지혜가 ‘들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러한 솔로몬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듣는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주시게 된다. 지혜의 출발은 ‘들음’에 있었던 것이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의 만남이 나온다. 두 제자는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두 제자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기록된 당시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셨다. 나중에 자신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고 난 제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

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눅 24:32).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음을 나중에 기억해낸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에 대한 성경이야기 보따리를 풀어서 들려주신 것이고, 그 이야기를 들은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지게 되었던 것이다. 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보고 마음이 뜨거워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음으로 마음이 뜨거워진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라고 말씀하고 있다.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알기에 주인은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한다는 것이다.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양은 문제가 있는 양이며, 주인의 진짜 양이 아닐 수 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는 말씀은 들음과 믿음의 관계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다. 믿음은 보는 것도, 느끼는 것도, 체험하는 것도 아닌 들음에서 생긴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라합의 믿음도 들음에서 나오는 믿음이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이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야고보서에서도 들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약 1:19). 말하기와 성내는 것은 최대한 더디 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는 의미이다. 그만큼 듣는 것이 신앙인의 삶에 유익하다는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다.

이상으로 듣기와 관련된 말씀들을 살펴보았다. 성경전체를 보면, ‘듣기’와 관련된 말씀이 중요하게 언급되고 집중적으로 다뤄진 부분이 있는데, 모세오경과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한 예언서, 그리고 사복음서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모세오경과 ‘들으라’ : 제사장 나라 Set-up

모세오경에는 듣기와 관계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에 그만큼 하실 말씀이 많이 있었던 것이다.

조병호는 성경 전체를 7개의 트랙으로 구분했는데, 그 중 첫 번째 트랙이 ‘모세오경’이다. ‘모세오경’의 분위기는 ‘제사장 나라 Set-up’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5권의 책을 주신 이유는 바로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다.²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후 그들을 통해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셨다. 이 일을 위해 시내 산에서 하늘로부터 법을 주셨고 그 법은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 되는 법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주신 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잘 듣고 순종함으로 제사장 나라를 올바르게 세워가기를 기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가 Set-up 될 수 있도록, 모세오경을 통해 당신의 말씀을 들으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시며 말씀하셨던 것이다. 모세오경에 ‘듣기’와 관련된 말씀이 집중적으로 많이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6장의 웨마이다.

²⁸ 조병호, *48시간 역사순 성경듣기 가이드북* (서울: 통독원, 2014), 33.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신6:4~9)

쉐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들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 ‘이스라엘아 들으라’ 로 말씀을 시작하신 것이다.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새겨야 하며, 언제든지 말씀을 강론해야 하고,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아야 하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야 하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의 기본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세워갈 수 있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제사장 나라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들음’ 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의 시작이며 만남의 핵심이었다.

‘듣는 것’ 을 소홀히 여긴 나머지 ‘듣는 것’ 대신 ‘보는 것’ 을 찾음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던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온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머물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사건이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시킨 큰 사건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듣기 보다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원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어야 안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그들의 잘못된 생각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말았다. 그로 인해 멸절

의 위기까지 겪게 된다.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시각화로 인해 만들어진 우상이 아니라,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예언서와 ‘들으라’ : 다시 시작하는 제사장 나라

모세오경에 이어 예언서에도 듣기와 관련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다. 특별히 예레미야에 많이 등장하는데 듣기와 관련된 말이 100회 이상 나오고 있다.

조병호가 구분한 성경의 7개 트랙 중 두 번째 트랙은 ‘왕정 500년’인데, ‘왕정 500년’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 왕의 통치 아래 살았던 500여 년을 일컫는다.²⁹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정 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제사장 나라의 꿈을 실현하지 못했고, 대부분의 왕들이 제사장 나라의 법에 충실하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 채 500여 년을 지속해 온 왕정을 끝내시고, 바벨론 포로 70년의 기간을 통해 다시 새롭게 제사장 나라를 시작하실 계획을 세우셨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 하셨다. 그 중 대표적인 선지자가 예레미야이다.

남유다 백성들이 왕정을 끝내시고 다시 시작하는 제사장 나라를 꿈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들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는 ‘듣기’와 관련된 말씀이 100회 이상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 중 한 곳인 예레미야 19장 3절을 살펴보자.

²⁹ Ibid., 59.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와 말씀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렘19:3)

하나님께서서는 유다의 왕들과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들으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들어야 할 내용의 핵심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끝내 감당하지 못한 왕정 500년은 끝나고 ‘제사장 나라’의 꿈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재앙이 내려질 것이라는 내용이다. 500년 동안, ‘제사장 나라’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끝내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제사장 나라’가 고사될 위기에 처해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도구로 사용해 회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바벨론 포로 70년을 준비하신 것이다. ‘제사장 나라’의 꿈을 이어가기 위해 고뇌에 찬 결정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당신의 말씀을 들으라고 끊임없이 경고하시며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다.

제사장 나라를 Set-up 하시면서 주셨던 ‘모세오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가 고사될 위기에 처해진 시점에서, 다시 ‘제사장 나라’의 불씨를 살려가기 위해 당신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들으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신 것이다. 예레미야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할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을 구원해주실 하나님의 청사진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바벨론 포로 70년을 결정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바벨론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라는 그릇된 허상에 사로잡혔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반복적으로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복음서와 ‘들으라’ : 하나님 나라 Set-up

조병호가 구분한 성경의 7개 트랙 중, 다섯 번째 트랙은 ‘사복음서’이다. 사복음서의 분위기는 ‘하나님 나라 Set-up’이라 할 수 있다. 구약의 키워드가 ‘제사장 나라’였다면, 신약의 키워드는 ‘제사장 나라’를 그 안에 수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무던히 애를 쓰셨다.³⁰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시는 과정과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과정이었던, 모세오경과 예레미야서를 통해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예수님께서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듣지 못하였느냐” 등의 표현을 사용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씨뿌리는 비유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13:9) 라고 말씀하셨다. 씨뿌리는 비유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듣고 이해하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제사장 나라를 수렴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시고 계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들음’에서 시작되고 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3절에서도 나오고 있다.

공관복음으로 알려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동일하게 기록된 사건들이 많이 있다. 그 중 한 사건이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서 변형되신 사건이다. 이 변화산 사건은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이다. 그 내용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

³⁰ Ibid., 123.

회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 17:5, 막 9:7, 눅 9:35)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말씀이다.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시면서 바로 그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생들의 화해자로, 그리고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고, 그 순간 ‘제사장 나라’ 그릇이 더 큰 ‘하나님 나라’ 그릇에 담기게 되었다.³¹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인생들의 죄에 대한 사면권을 받아 내셨다. 모든 인생들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모든 인생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미 살펴 보았듯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서 중요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도마가 책망을 들은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믿지 못하고, 눈으로 보고 나서 믿겠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믿음은 시각적으로 보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생기는 것이다.

듣는 성경의 신학적 근거

듣는 성경의 성경적 근거에 이어 이 장에서는 듣는 성경의 신학적 근거에 대

³¹ 조병호, *통성경학교*, 26.

해 다뤄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믿음은 시각적인 방법을 통해서라기 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21세기의 시대적 환경과 조건은 시각적 환경에 더 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윤석천은 이 부분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컴퓨터와 기계가 결합된 사이버 공간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는 시각주도적 경향을 가진다. 문제는 이러한 시각주도적 경향의 시대에 대해서 예코, 맥루한 등이 중세와 유사하다는 지적들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별히 버트하임은 시각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중세와 사이버 시대의 공간관이 유사하다고 지적한다.³²

사이버 공간을 살아가는 이 시대가 시각주도적 경향을 가진다는 윤석천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많은 학자들의 주장이 시각주도적인 경향을 가진 21세기의 시대적 환경이 중세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것이다³³. 다시 말해, 중세 1,000년 동안 로마 카톨릭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줌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자라게 했다가 보다는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방법들을 동원해 신앙의 내용들을 채워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세 1,000년 동안 시각주도적인 경향이 강한 나머지 ‘들음’에 대한 비중이 많이 약화되었고,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종교개혁자들은 ‘들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김대진은 설교 사역에 있어서도 충실한 듣기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한다. 또한 듣기에 대한 연구보다 말하기에 대한 연구에 편중되어 있는 현대 설교학의 아쉬움을 나타내며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들음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로 인해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채 설교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교자의 본문 읽기는 초대교회공동체와 종교개혁으

³² 윤천석, “사이버시대와 시각주도적 감성에 대하여,” 73-74.

³³ Ibid., 87.

로부터 배우는 듣기의 해석학을 향해서 나아갈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³⁴

루터의 들려줌과 들음의 신학

윌리엄 윌리몬은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읽기와 설교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내용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륙 종교개혁의 중요 목적 가운데 하나는 성직자들을 몽땅 개혁하여, 그들을 일차적으로 설교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종교개혁이 다시 발견한 것은 성서 읽기와 설교하기였다. 루터와 칼빈과 츠빙글리는 모든 설교가 목회활동 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일이라고 강조하였다. 루터는 교회를 가리켜 “입의 집” 이라 하였고, 바울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강조하였다.³⁵

강웅섭은 ‘루터에 따른 믿음과 회개: 들려줌과 들음의 변주’ 라는 글에서 들려줌과 들음으로 인해 생기는 믿음을 역설한 루터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들려줌에 의한 믿음은 그리스도에 의한 믿음이고, 들음에 의한 믿음은 인간에 의한 믿음이다. 루터에게서 들음과 들려줌은 말씀-세례-성례전이라는 복음을 통한 하나님 말씀, 계시된 하나님에 관한 내용인 것이다.³⁶

강웅섭은 루터가 말한 믿음을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들음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것이다. 들음은 최초의 선포 때 들려주었던 바로 그것을 정확하게 듣지 못했기에 오늘날도 계속해서 다시 들어야 하는 들음이다. 들려줌은 첫 번째 들려준 것을 바로 듣지 못했기에 그 후로 계속해서 다시 들려주는 들려줌이다. 행함은 최초의 선포 때 들려주었던 바로 그것을 바로 듣지 못했기에 행하지 못한 행함이어서 오늘날도 계속해서 다시 행하는 행함이다. 이를 위해 다시 들어야 하는 들음이 요청된다. 최초에 선포된 말씀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듣게 될 때 동일한 들음과 행함의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들려줌과 들음 사이에는 끝나지 않는 반복이 계속 되기

³⁴ 김대진, “권위적인 한국적 상황에서의 제자훈련으로서의 설교: 듣기의 해석학을 향하여,” (박사학위논문, 스텔렌보스대학교, 2013).

³⁵ William Willimon, *Pastor*, 최중수 역, *21세기형 목회자*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04), 212.

³⁶ 강웅섭, “루터에 따른 믿음과 회개: 들려줌과 들음의 변주,” 8 *한국복음주의조직신학회 조직신학연구* (2014년), 197-198.

때문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려줌과 들음을 통해 놀림과 감시에서 벗어나 정체됨에서 소통됨으로 이끄는 역설적 역동의 근원이요 언제나 새로운 변주를 가능케 하는 성령의 선물이다.³⁷

루터가 실제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했던 단어가 ‘들음’ 이었는데, 대표적인 예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성경 말씀을 루터는 ‘청각적 사건’으로 해석했다는 것이다.³⁸ 다시 말해, 루터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시각적인 사건’이 아닌, ‘청각적 사건’임을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말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루터에게 있어서 믿음은 계속적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가능케 되는 은혜의 사건이며, 들려줌과 들음을 통해 주어지는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이다.

칼빈의 들음의 신학

중세는 청각주도적인 말씀 들음에 대한 요소를 시각지향적 사유로 바꾼 시대였다고 많은 이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현 시대 역시 시각주도적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³⁹ 현대인은 시각화에 익숙해져 있고 철저하게 과학적인 사고에 길들여져 살면서 물리적인 공간에 익숙해져 있기에 ‘로고스 중심주의적 - 음성 중심적 서구형이상학’의 전통을 무시하는 경향을 갖게 되었다.⁴⁰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중세의 시각주도적인 상황을 배격하고 교회를 청각주도적인 상황으로 바꾸기 위해 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의 무한성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

³⁷ Ibid., 227.

³⁸ 윤천석, “사이버시대와 시각주도적 감성에 대하여,” 75.

³⁹ Ibid., 87.

⁴⁰ Ibid., 85.

우리의 감각으로는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본성은 실로 자신에 대한 그 어떤 세속적이고 육적인 상상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신다”⁴¹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에게 어떠한 육적인 형태로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시며, 그러기에 우리에게 어떠한 육적인 상상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육적인 상상을 현실로 만들었던 사건의 예로는 시내산에서의 금송아지 사건을 들 수 있다. 칼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형상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⁴²임을 언급하며, 중세시대에 세운 여러 형상들은 잘못된 시각주도적 현상이라고 지적한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믿음에 대한 정의와 속성에 대해 설명할 때 “믿음의 근거는 지식이지 경건한 무지가 아니다”⁴³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이다”⁴⁴라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믿음의 근거는 지식인데 그 지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롬 10:17)는 말씀에 비취볼 때, 인생들은 믿음의 근거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칼빈에게 있어서 인식론적 발상은 “하나님 지식은 직관적·청각적 지식이고, 말씀과 성령의 결합은 청각적·직관적 지식에서 기인한다”에서 출발한다. 개혁신학은 인간중심의 신앙세계를 구축하려는 어떤 신학구조도 배격하기에 개혁신학의 대표적 인물인 칼빈의 관점에서 보면, 극단적인 시각주도적 경향으로 나아간 중세시대와

⁴¹ 칼빈, *기독교강요* 김종흡, 신복윤, 이종성, 한철하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7), 1.13.1.

⁴² Ibid., 1.12.3.

⁴³ Ibid., 3.2.2.

⁴⁴ Ibid., 3.2.6.

현시대는 많은 근원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⁴⁵

윤석천은 중세의 시각주도적인 현상이 잘못된 것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칼빈의 주장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칼빈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은 불신앙적’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서는 가시적 형태로 자신을 표현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금하신다’ 고 말한다. 중세는 시각주도적 교육을 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주도적으로 나아갔다. 현시대 역시 시각주도적으로 나아가면서 중세와 거의 유사하다. 칼빈이 시각주도적 경향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유는 성령님에 대한 그의 신학 때문이다. 성령님은 인간이 고안해 낸 일체의 예배행위를 거절하신다.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지시되었다고 하면서 성령님 속성 가운데 하나를 언어의 가장 훌륭한 숙달자이신 성령님으로 말한다.⁴⁶

다음의 도표는 윤석천이 정리한 것으로 ‘기독교 강요’ 1,2,3권에서 시각화에 대해 비판하면서 청각주도적인 내용을 말한 부분을 정리해 놓은 도표이다. 1권에서는 35절, 2권에서는 6절, 3권에서는 32절, 4권에서는 31절씩 시각주도적인 사유를 비판한다.⁴⁷

<표2> 기독교강요, 시각주도적인 것에 대한 비판이 나와 있는 권, 장, 절⁴⁸

1권	장	절		13	7		5	9		5	17
	5	5		13	15		5	10		10	12
	5	10		13	22		9	2		10	14
	5	11		14	4		11	6		10	29

⁴⁵ 윤석천, “사이버시대와 시각주도적 감성에 대하여,” 76.

⁴⁶ Ibid., 94-96.

⁴⁷ Ibid., 99.

⁴⁸ Ibid.

	5	12		14	8		12	2		14	
	5	13		14	29		13	2		14	1
	8	7		15	3		13	3		14	3
	9	2	2권	장	절		13	4		14	4
	9	3		8	10		15			14	5
	10	3		8	17		15	2		14	6
	11			8	58		20	4		14	9
	11	1		8	59		20	5		14	14
	11	2		14	8		20	10		14	16
	11	3		15	5		20	13		14	24
	11	4	3권	장	절		20	16		15	19
	11	5		1			20	21		17	12
	11	6		2	6		20	24		17	13
	11	7		2	14		20	30		17	14
	11	8		2	23	4권	장	절		17	15
	11	9		2	30		1	4		17	20
	11	10		2	41		1	5		17	28
	11	11		4	28		1	7			
	11	12		5			2	4			
	11	13		5	1		2	7			

	11	14		5	2		2	9		
	12	1		5	3		3	13		
	12	2		5	6		4	8		
	12	3		5	7		5	5		
	13	1		5	8		5	10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교리가 순수하고 건전할 때에는 교회가 형상물들을 거절하였다” 고 말하면서 “종교가 아주 번창하고, 순수한 교리가 우세하던 약 500년 동안, 기독교회에는 일반적으로 형상물들이 없었는데, 성직의 순수성이 점점 쇠퇴하여감에 따라 교회를 장식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그 형상들이 소개되었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⁴⁹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통해 신앙의 시각화가 가져온 폐해들을 정확하게 지적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함이 시각주도적인 측면에서 청각주도적인 측면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칼빈의 이러한 주장은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그 당시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오늘날의 신앙인들도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순종하기보다는 눈에 보여지는 기적이나 어떤 것을 잡으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중세교회 1000년이 암흑기로 남을 수 밖에 없었던 원인 중의 하나가 청각주도적인 말씀의 들음을 시각주도적인 방법으로 바꾸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⁴⁹ 칼빈, *기독교강요*, 1.11.13.

신앙인들의 삶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 로마 카톨릭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신앙의 외적인 요소들을 중요하게 간주함으로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교황의 말과 교회의 권위가 더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기형적인 교회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중세시대와 비슷하게 시각주도적인 경향이 강한 21세기에도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방법으로 채워가기 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청각적인 방법으로 채워가야 할 것이다.

레너드 스윗의 소리신학

레너드 스윗은 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생각을 물질에서 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진동으로, 눈에서 귀로, 구조에서 리듬으로 이행시켜 주신 것이라고 말한다.⁵⁰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사고 전환을 촉구하신 것이다. 눈에 보이는 물질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를 통해 연결될 수 있는 영으로의 전환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시각적인 부분에서 진동과 청각적인 부분으로의 사고전환을 강조하신 것이다. 레너드 스윗의 이 말은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영역은 물질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지만, 귀로 듣는 청각적인 영역은 물질의 한계를 넘어 영적인 세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레너드 스윗은 하나님께서 조물주와 피조물을 이어주는 천연 배관으로써 우리의 귀를 눈보다 더 섬세하게 제작해주셨음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눈을 통해서보다

⁵⁰ Leonard Sweet, *11 Genetic Gateways to Spiritual Awakening* (TN: Abingdon Press, 1998), 158.

귀를 통해서 세상을 훨씬 더 많이 인지하고 있음을 강조한다.⁵¹ 또한 “믿음은 시각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진동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⁵²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천연 배관은 시각적인 눈이 아니라 청각적인 귀라는 것이다. 즉,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갖는 믿음은 시각적인 영역이라기 보다는 진동하는 것이며 청각적 영역임을 말한다. 또한, 인간이 세상을 알아가고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도 눈이 아닌 귀를 통해서이다. 다시 말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요한 통로이면서 동시에 세상을 인지하는 통로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시각과 청각의 중복장애를 갖고 있었던 헬렌켈러의 경우에도 볼 수 없음 보다는 들을 수 없음이 더 힘들었다고 한다.⁵³ 눈보다는 귀가 세상을 인지하는 효과적인 통로라는 사실은 장애인 사역에 종사하는 봉사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더욱 실감할 수 있다. 봉사자들이 가장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봉사하는 대상은 다름아닌 청각장애인이라고 한다. 시각장애인보다 청각장애인이 세상과 소통 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세상과의 소통에 시각보다 청각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예로 볼 수 있다.

레너드 스윗은 또한 우리의 눈은 우리를 세상으로 인도해 주는 반면, 귀는 우리 안으로 세상을 가져온다라고 언급하며, 서양종교는 신성한 소리보다는 신성한 시간과, 신성한 공간, 그리고 신성한 이미지만을 강조해왔다고 말한다.⁵⁴ 레너드 스윗의 이 말에는 세상을 우리 안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귀와 신성한 소리에 대한 중요성을 서양종교가 소홀히 했다는 아쉬움이 들어있다. 다시 말해 영에 이르는 길은

⁵¹ Ibid.

⁵² Leonard Sweet, *The Greatest Story Never Told: Revive Us Again*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12), 19.

⁵³ 레너드 스윗, 드루대학교 목회학 박사 과정 강의 (2014년 3월 3일)

⁵⁴ Leonard Sweet, *Summoned to Lead* (Grand Rapids, MI: Zondervan, 2004), 71.

눈이 아닌 귀를 통해서 가능한데, 바로 그 귀를 통한 방식을 놓쳤다는 지적인 것이다. 그러하기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관심을 눈에서 귀로 전환시키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다. 레너드 스윗이 말하는 소리신학은 바로 이 부분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는 계속 말하기를 인간의 두뇌가 시각보다는 소리에 연결되어 있기에 산문 구절들보다는 음악적 멜로디를 더 많이 기억한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귀꺼풀을 주시지 않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며, 그러하기에 인간은 물음표 모양을 하고 있는 귀를 신뢰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⁵⁵

인간의 두뇌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자극시키는 요소는 시각이 아닌 청각이다. 인간의 두뇌는 눈으로 보고 인지한 내용보다는, 귀로 듣고 인지한 내용을 더 많이 기억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정보와 지식을 두뇌로 전달하기에 더 효과적인 통로인 귀에는 귀꺼풀을 주시지 않았지만, 귀보다 효과가 떨어지는 눈에는 눈꺼풀을 주셨다라는 레너드 스윗의 말에 설득력이 있다.

레너드 스윗은 기독교 교리교육에 있어서 소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헬라이어 Catechesis(교리/신앙교육)는 영어로 Echo(메아리)의 뜻을 가지고 있다. Catechesis는 문자적으로 울려 퍼짐을 의미한다. 만약 소리가 울려 퍼지지 않고 사라져버린다고거나 기억되는 형태로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소리는 감동을 주지도 못하며 성육신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모든 교리교육의 첫 번째 과업은 듣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해와 순종은 들음을 뒤따른다. 성경이 ‘이해하는 마음’ 을 언급할 때, 실제 의미는 ‘듣는 마음’ 인 것이다. 주된 교리교육 훈련은 듣는 법과 조용히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기에, 우리는 먼저 들을 수 있고, 순순히 그리스도의 사람을 모든 장소와 시대로 건네주거나 올려줄 수 있다.”⁵⁶

⁵⁵ Ibid., 58.

⁵⁶ Leonard Sweet, *The Greatest Story Never Told*, 44-45.

교리교육의 시작이 소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레너드 스윗의 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교리교육이 흔들리는 주된 이유는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방법인 “소리”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해와 순종은 들음을 전제로 가능한 것이며, 이해하는 마음도 듣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린 이후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다름아닌 ‘듣는 마음’ (왕상 3:9)이었다. 듣는 마음이 전제되어야 지혜와 믿음이 뒤따라 나온다.

레너드 스윗이 말하는 소리신학의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통로로 눈보다는 귀를 주셨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인간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두뇌의 활동이 시각적인 부분보다는 청각적인 부분과 보다 더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유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각적인 영역에 치중되어 있는 인생들을 청각적인 영역으로 전환시키시기 위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소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셨던 것이다.

조병호의 소리신학

성경을 소리내어 읽기

조병호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강조하며, 통성경에 대해 5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그 중 두 번째가 ‘성경은 소리 내서 읽을 책’이라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문자로 담아낸 책이기 때문에, 문자로 읽고 소리 내서 읽어야 함을 강조한 말이다. 성경을 소리 내어 읽으면 말씀이 더욱 생생

하게 느껴진다고 말한다.⁵⁷

조병호는 성경의 여러 이야기를 예로 들어, 성경을 소리 내서 읽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육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되더니 제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 27:45-46).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마지막 죽을힘을 다해 크게 소리 지르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본문을 눈으로만 읽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위에서 마지막 사력을 다해 소리 지르신 부분을 끝내 감도 잡지 못해볼 것입니다. 한번 큰 소리로 이 본문을 예수님처럼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깊고 다른 감동을 얻게 되는지 스스로 놀라게 될 것입니다.⁵⁸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행 2:1-2).

급하고 강한 바람, 이것은 태풍입니다. 그 태풍은 메가톤급 태풍이었고, 그 태풍의 ‘소리’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부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하실 때 소리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큰 소리로 지나가고, 그 다음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소리가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⁵⁹

성경 이야기의 생생한 장면을 경험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눈으로만 읽어서는 한계가 있기에, 직접 소리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목소리로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 이야기의 현장에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다. 또한 성경을 읽는 자신의 목소리를 귀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⁵⁷ 조병호, *통성경학교*, 34.

⁵⁸ 조병호, *48시간 역사순 성경듣기*, 10.

⁵⁹ Ibid.

성경을 1년에 10번 듣기

조병호가 말하는 통성경의 5가지 내용 중에서, 세 번째는 ‘성경은 1년 10번 들을 책’ 이라는 것이다. 성경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1년에 10번은 반복해서 들어야 함을 강조한 말이다.⁶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새해가 되면 성경을 일독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결심을 다지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1년에 성경전체를 1번 읽는 것이 쉽지 않기에 연초에 굉장한 결심을 세우는 것이다. 그런데 조병호는 1년에 10번씩 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10번 정도는 들어야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 성경 전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1년에 10번씩 성경을 듣기 위해 조병호는 5가지의 방법을 제안한다.

쉽게 효과적으로 성경전체를 듣는 5가지의 방법은, 첫째는 ‘성경을 역사순 스토리로 들으라’ 이고, 둘째는 ‘그룹을 만들어 함께 들으라’ 이고, 셋째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매일 1시간씩 들으라’ 이고, 넷째는 ‘속도, 볼륨을 각자에게 맞게 튜닝해서 들으라’ 이고, 다섯째는 ‘산책 등 활동하면서 들으라’ 이다.⁶¹

성경을 역사순 스토리로 듣는다.

‘통(通)성경 방법론’ 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조병호는 성경전체를 역사순으로 재배열해서 읽어야 함을 강조한다. 장르별로 편제되어 있는 성경의 장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자신이 읽고 있는 성경말씀이 율법서인지, 역사서인지, 예언서인지, 시가서인지, 또는 복음서인지, 서신서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읽는

⁶⁰ 조병호, *통성경학교*, 35.

⁶¹ Ibid.

것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읽는 것은 실로 큰 차이가 있다.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는 장르별로 편제되어 있는 성경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조병호가 지적한 것처럼, 장르별 편제는 역사적인 순차성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을 연결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 부분과 관련한 조병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역사순으로 성경을 들으면 성경이 매우 쉽고 귀에 쫄쫄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다음에 <시편>,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등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대로 성경을 읽으면 사건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성경은 <느헤미야>가 먼저 나오고 한참 뒤에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읽으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먼저 읽고, <느헤미야>를 다음에 읽는 게 좋습니다. 예레미야가 느헤미야보다 150년이나 먼저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⁶²

왜 성경을 역사순 순서대로 듣고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대로 예레미야와 느헤미야의 경우 외에도 많은 예들이 있다. 가령, 다윗의 시편들은 사무엘상·하서와 함께, 시가서들은 열왕기상과 함께 연결해서 들으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구약의 예언서들은 열왕기하와 함께 역사적 흐름에 맞춰 시대별로 재배열하여 들을 수 있다. 신약의 경우에는 사도행전을 통독하면서 바울의 서신서들을 역사순으로 재배열한다면, 복잡한 내용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⁶² 조병호, *48시간 역사순 성경듣기*, 11.

그룹을 지어 함께 듣는다.

조병호가 제안하는 효과적인 성경듣기의 두 번째 방법은 그룹을 지어 함께 듣는 것이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결심하는 것 중의 하나가 새해에는 적어도 성경을 일독 해야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당찬 결심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다. 바쁜 일상 속에 살다 보면 새해 첫날의 결심이 점점 약해지고 현실과 타협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극복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는 팀을 짜거나 그룹을 만들어서 함께 듣는 방법이다.

그룹을 만드는 방법은 교회와 직장, 학교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팀을 만들어 성경을 듣는다면 실로 말씀에 기반한 복된 가정이 될 것이며, 말씀교육의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통박사 조병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룹을 지어 함께 듣는 방법의 장점은 엄마와 어린아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태교로부터 겨우 한두 살 된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엄마와 함께 듣는 것입니다. 태어난 그날부터 엄마와 아이가 함께 하루에 한 시간씩 성경을 들으면 1년에 10번 듣고, 그 아이가 5살이 되면 성경을 50번을 들은 아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세상과 싸워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이걸 읽기로는 불가능합니다. 듣기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을 소리 내서 읽는다, 눈으로 읽는다, 손으로 쓴다, 그 다음 마음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한참 지나야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귀로 듣는 것은 엄마하고 팀만 짜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한다면 성경을 1년에 10번 듣고 세상에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당연히 믿음은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⁶³

요즘 시대는 많은 부모들이 태교는 물론 자녀교육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는 시대이다. 특별히 신앙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 있어서 신앙교육과 자녀교육은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이 점과 관련해서 통박

⁶³ Ibid., 15.

사 조병호는 모세오경의 말씀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세가 120세에 책 다섯 권(모세5경)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에게 선물로 건네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섯 권의 책을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섯 권의 책을 부모가 각자 자기 자녀에게 가르치는 방법론으로 첫째,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둘째, 길을 행할 때에든지, 셋째, 누웠을 때에든지, 넷째, 일어날 때에든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집에 앉았을 때에는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행할 때는 책을 읽을 수 없습니다. 누웠을 때나 일어나는 순간도 책을 읽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때문에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 친한 친구들이 그룹을 지어 함께 성경을 들으면 효과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⁶⁴

스마트폰으로 하루에 1시간씩 매일 듣는다.

조병호가 제안하는 효과적인 성경듣기의 세 번째 방법은 스마트폰으로 하루에 1시간씩 매일 듣는 것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병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요즘 스마트폰에 대한 부작용이 심심치 않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을 가장 월등하게 사용하는 나라에 속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스마트폰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활용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로 녹음기를 들고 다니며 성경을 듣는 것은 너무 불편한 일이지만, 스마트폰은 사용도 간편하고,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매일 1시간씩 성경을 들으면, 1년에 10번 성경을 듣는 일은 너무 쉬워서 스스로도 다들 놀랄 것입니다.⁶⁵

볼륨과 속도를 개인적으로 튜닝해서 듣는다.

조병호가 제안하는 효과적인 성경듣기의 네 번째 방법은 볼륨과 속도를 개인적으로 튜닝해서 듣는 것이다. 성경을 듣는 이들의 각자 상황과 형편에 맞게 속도와 볼륨을 튜닝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조병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미 녹음되어 있는 성경을 각자 자신에게 맞게 볼륨과 속도를 조절해서 듣는

⁶⁴ Ibid., 15-16.

⁶⁵ Ibid., 16.

것입니다. 성경듣기를 시작하면 큰 글씨 없이는 성경을 읽지 못하셨던 어르신들도 성경을 들으며 믿음이 자랄 수 있고, 어린아이들도 성경을 들으며 재미있어 할 것입니다. 속도와 볼륨을 개인에 맞게 튜닝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을 들으십시오.⁶⁶

산책이나 설거지 등 활동하면서 듣는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성경듣기의 다섯 번째 방법은 산책이나 설거지 등 활동하면서 듣는 것이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듣기이다. 듣기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조병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설거지나 산책을 하면서 책을 읽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듣기는 참으로 쉽습니다. 라디오를 들으며 일하는 사람들이 많듯이 말입니다. 활동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생각 이상으로 성경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1년 10번 듣기가 매우 쉽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⁶⁷

듣는 성경의 목회적 근거

성도의 신앙 성장

주일예배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성경전체를 역사순 스토리로 계속 듣게 되면 성경의 전체 줄거리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각각의 성경 이야기들이 어떻게 연결되며 어떤 원인과 과정 속에서 어떻게 결과들이 발생하게 되는지를 더욱 깊이 있게 알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예배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⁶⁶ Ibid.

⁶⁷ Ibid.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 인생들의 삶으로부터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까이 계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귓전에 늘 생생하다.

내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게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성경 전체를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깊게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 중요한 법인데, 말씀을 계속 듣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다.

말씀에 친숙해지기 때문에 신앙에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주일이 기다려진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공부하고 잘 알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늘 있는데, 성경을 들음으로 말씀과 친숙해지면 신앙생활에 자신감이 생기게 된다. 또한 주일에 배도 기다려지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도 사모하며 기대하게 된다.

삶 속에서 성경을 듣는 습관이 신앙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세상의 많은 소리에 우선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보다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

반복적 성경듣기는 짧은 시간 안에 성경 전체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반복적으로 성경을 듣게 되면, 성경전체의 흐름은 물론 성경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에 대한 약속이 출애굽기에서 성취됨을 볼 수 있고, 또한 땅에 대한 약속은 여호수아서를 통해 성취됨을 볼 수 있다. 성경을 반복적으로 듣게 되면 이러한 사건의 연결들이 명확해지고, 결국에는 성경전체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다.

말씀의 현장성

성경 이야기에 나오는 음성이 생동감 있게 들린다.

성경을 소리와 음성으로 듣게 되면 성경의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현장감을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성경 스토리의 현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느낌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기 위해 칼을 잡아 죽이려 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급하게 제지하는 목소리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는 장면을 음성으로 듣게 되면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이야기의 현장감을 훨씬 더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다. (창 22:11)

또 하나의 예는 요나가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화를 내면서 비꼬는 투로 내뱉은 말 중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만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요나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표현하고 있는 듯하나, 스토리의 흐름으로 보면 하나님께 화가 난 요나가 씩씩거리며 하나님의 성품을 비아냥거리듯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다. 이 장면을 눈으로만 읽으면 생동감이 덜하지만, 소리로 들으면 그 현장의 상황 속으로 생생하게 들어 갈 수 있다.

(은 4:2) 이처럼, 성경의 사건을 이해함에 있어 그 이야기의 생생한 현장을 소리로 느끼게 한다면 성도들의 성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가 있다,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과 머리 속에서 구체화할 수 있다.

성경을 들으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마음과 머리속에서 구체적으로 그려가며 들을 수 있다. 성경 내용을 더욱 생생하게 머리속에 떠올릴 수 있으며, 실감나게 성경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다.

말씀듣기의 용이성

글을 익히지 못한 영·유아들에게 성경교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아직 글을 익히지 못한 영·유아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가르치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들려주는 방법이다. 어린 시절부터 성경내용을 직접 듣거나 부모들로부터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들은 그만큼 신앙성장에 있어 큰 도움을 받게 된다.

연세가 많아 글을 읽기가 어려운 성도들에게 성경교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연세가 많아 성경을 읽기 어려운 성도들에게도 성경듣기는 가장 효과적인 성경 교육이 될 수 있다. 돋보기를 사용해 보더라도 쉽게 피로해지기 때문에 오랜시간 성경을 읽을 수 없다. 그런데, 성경을 듣는다면 언제 어디서든 편안하게 성경을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혹여 몸이 불편한 성도들에게도 성경듣기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상생활 가운데 바쁜 청년, 대학생과 직장인들을 위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매우 바쁘게 살아간다. 시간을 쪼개어 책을 읽을 시간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성경 듣기는 바쁜 시간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유익한 방법이다. 출퇴근 길에, 가벼운 산책 길에, 아침 기상 후에, 저녁 취침 전에, 심지어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성경을 들을 수가 있다.

제 IV 장

성경듣기 진행의 실제

인간의 삶에 있어 듣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역사순 이야기로 듣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성장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 보았다. 이제 이 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성장에 있어 중요한 성경듣기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48시간 역사순 성경듣기

‘48시간 역사순 성경듣기’의 실제는 조병호의 저서인 ‘48시간 역사순 성경듣기 가이드북’과 조병호가 편찬한 ‘역사순 《1년1독 통독성경》’을 활용하여 진행한다. ‘48시간 역사순 성경듣기’는 성경 전체를 역사순으로 듣되, 3박4일 동안 48시간을 확보하여 단체로 또는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준비

역사순 ‘1년1독 통독성경’

‘48시간 역사순 성경듣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준비는 성경전체를 역사순으로 재배열한 역사순 ‘1년1독 통독성경’이다. 역사순 ‘1년1독 통독성경’은 성

경 66권을 장르별이 아닌 역사순으로 재배열했을 뿐 아니라, 하루에 2~3장씩 볼 수 있도록 성경전체를 365일 분량으로 나누었고, 매 일자 별로 그 날에 해당하는 통독 본문에 대한 내용정리까지 자세하게 실어놓았다.

‘1년1독 통독성경’은 신구약 66권 전체를 역사순으로 재배열하여 편찬한 성경이다. 구약의 경우에는 사무엘상·하서와 함께 시편의 일부가 묶여져 있고, 열왕기상과 함께 시가서가 묶여져 있으며, 예언서의 경우는 열왕기하와 함께 시대순으로 재배열되어 있다. 신약의 경우에는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바울의 서신서들이 재배열되어 묶여져 있다.

그러나 ‘1년1독 통독성경’은 단순한 기계적 연대기순 배열과는 차이가 있다. ‘1년1독 통독성경’의 역사순 배열의 가장 큰 목적은 성경전체의 스토리가 역사순으로 이어지도록, 그리고 성경의 많은 사건들이 서로 잘 연결되도록 배열함에 있다. 예를 들어, 율기의 경우는 연대기적으로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사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창세기의 흐름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기에 창세기와 묶어 배열하기보다는 같은 시가서인 시편과 묶어서 배열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또한 조병호는 역사순 ‘1년1독 통독성경’을 그대로 녹음하여 음원파일을 스마트폰 앱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2015년 연말을 기준으로 전세계적으로 6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앱을 다운받아 매일 역사순으로 성경을 듣고 있다. 역사순 ‘1년1독 통독성경’으로 하루에 1일치 분량을 듣고 읽으면 1년에 1독을 할 수 있으며, 하루에 5일치 분량을 듣고 읽으면 1년에 5독, 10일치 분량이면 1년에 10독을 할 수 있게 된다.

조병호가 역사순으로 재배열한 역사순 ‘1년1독 통독성경’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역사순 1년1독 통독성경’ 목차¹

<표3> 1년1독 통독성경, 구약성경 목차 1

순서	범위	순서	범위	순서	범위
1	창 1~2장	33	레 1~5장	65	신 18~21장
2	창 3~5장	34	레 6~7장	66	신 22~26장
3	창 6~9장	35	레 8~10장	67	신 27~28장
4	창 10~11장	36	레 11~13장	68	신 29~30장
5	창 12~14장	37	레 14~15장	69	신 31~32장
6	창 15~17장	38	레 16~17장	70	신 33~34장, 시 90편
7	창 18~21장	39	레 18~20장	71	수 1~2장
8	창 22~24장	40	레 21~22장	72	수 3~5장
9	창 25~27장	41	레 23~25장	73	수 6~8장
10	창 28~30장	42	레 26~27장	74	수 9~12장
11	창 31~33장	43	민 1~2장	75	수 13~17장
12	창 34~36장	44	민 3~4장	76	수 18~19장
13	창 37~38장	45	민 5~6장	77	수 20~22장
14	창 39~41장	46	민 7~8장	78	수 23~24장

¹ 조병호, *일년일독 통독성경* (서울: 통독원, 2008).

15	창 42~44장	47	민 9장~10:10	79	삿 1장~2:10
16	창 45~47장	48	민 10:11~12장	80	삿 2:11~5장
17	창 48~50장	49	민 13~14장	81	삿 6~7장
18	출 1~2장	50	민 15~17장	82	삿 8~9장
19	출 3~4장	51	민 18~19장	83	삿 10~12장
20	출 5~7장	52	민 20~21장	84	삿 13~16장
21	출 8~10장	53	민 22~25장	85	삿 17~18장
22	출 11~13장	54	민 26~27장	86	삿 19~21장
23	출 14~15장	55	민 28~30장	87	룻 1~4장
24	출 16~18장	56	민 31~32장	88	삼상 1~3장
25	출 19~20장	57	민 33~36장	89	삼상 4~7장
26	출 21~23장	58	신 1~2장	90	삼상 8~10장
27	출 24~27장	59	신 3~4장	91	삼상 11~12장
28	출 28~29장	60	신 5~6장	92	삼상 13~14장
29	출 30~31장	61	신 7~9장	93	삼상 15~16장
30	출 32~34장	62	신 10~11장	94	삼상 17~18장
31	출 35~38장	63	신 12~14장	95	삼상 19장, 시 59 편
32	출 39~40장	64	신 15~17장	96	삼상 20~21장, 시 34편

<표4> 구약성경 목차 2

순서	범위	순서	범위	순서	범위
97	삼상 22장, 시 52 편	129	전 8~12장	161	왕상 16:21~17장
98	삼상 23~24장, 시 57편	130	읍 1~3장	162	왕상 18~19장
99	삼상 25~26장, 시 54편	131	읍 4~7장	163	왕상 20~22장
100	삼상 27~31장	132	읍 8~10장	164	왕하 1~2장
101	삼하 1~2장	133	읍 11~14장	165	왕하 3~5장
102	삼하 3장~5:5	134	읍 15~17장	166	왕하 6~8장
103	삼하 5:6~6장	135	읍 18~19장	167	왕하 9~10장
104	삼하 7~10장	136	읍 20~21장	168	왕하 11~14장
105	삼하 11~12장, 시 51편	137	읍 22~24장	169	암 1~5장
106	삼하 13~14장	138	읍 25~31장	170	암 6~9장
107	삼하 15장, 시 3편	139	읍 32~37장	171	호 1~4장
108	삼하 16~17장	140	읍 38~42장	172	호 5~9장
109	삼하 18~20장	141	시 1~2, 4~9편	173	호 10~14장
110	삼하 21~22장	142	시 10~18편	174	은 1~4장

111	삼하 23~24장	143	시 19~27편	175	왕하 15~16장
112	왕상 1~2장	144	시 28~33편	176	왕하 17장~18:12
113	왕상 3~4장	145	시 35~41편	177	사 1~3장
114	왕상 5~7장	146	시 42~50, 53편	178	사 4~7장
115	왕상 8장	147	시 55~56, 58, 60~66편	179	사 8~12장
116	왕상 9~10장	148	시 67~72편	180	사 13~17장
117	잠 1~5장	149	시 73~78편	181	사 18~20장
118	잠 6~9장	150	시 79~85편	182	사 21~24장
119	잠 10~15장	151	시 86~89편	183	사 25~29장
120	잠 16~20장	152	시 91~102편	184	사 30~35장
121	잠 21~24장	153	시 103~106편	185	왕하 18:13~37, 사 36장
122	잠 25~29장	154	시 107~118편	186	왕하 19장, 사 37 장
123	잠 30~31장	155	시 119편	187	왕하 20장, 사 38~39장
124	아 1~4장	156	시 120~134편	188	사 40~42장
125	아 5~8장	157	시 135~142편	189	사 43~45장
126	왕상 11장	158	시 143~150편	190	사 46~50장

127	전 1~3장	159	왕상 12~14장	191	사 51~55장
128	전 4~7장	160	왕상 15~16:20	192	사 56~59장

<표5> 구약성경 목차 3

순서	범위	순서	범위	순서	범위
193	사 60~63장	223	대상 1~3장	253	겔 33~35장
194	사 64~66장	224	대상 4~5장	254	겔 36~37장
195	미 1~3장	225	대상 6~9장	255	겔 38~39장
196	미 4~7장	226	대상 10~12장	256	겔 40~41장
197	왕하 21~23장	227	대상 13~16장	257	겔 42~43장
198	슥 1~3장	228	대상 17~20장	258	겔 44~46장
199	합 1~3장	229	대상 21~22장	259	겔 47~48장
200	나 1~3장	230	대상 23~26장	260	단 1~2장
201	욘 1~3장	231	대상 27~29장	261	단 3~4장
202	왕하 24장, 렘 1~3장	232	대하 1~4장	262	단 5~6장
203	렘 4~6장	233	대하 5~7장	263	단 7~9장
204	렘 7~9장	234	대하 8~9장	264	단 10~12장
205	렘 10~13장	235	대하 10~13장	265	스 1~2장
206	렘 14~16장	236	대하 14~17장	266	스 3~4장

207	렘 17~20장	237	대하 18~22장	267	학 1~2장
208	렘 21~23장	238	대하 23~25장	268	속 1~6장
209	렘 24~25장	239	대하 26~28장	269	속 7~10장
210	렘 26~28장	240	대하 29~31장	270	속 11~14장
211	렘 29~31장	241	대하 32~33장	271	스 5~6장
212	렘 32~33장	242	대하 34~36장	272	에 1~5장
213	렘 34~36장	243	겔 1~3장	273	에 6~10장
214	렘 37~38장	244	겔 4~7장	274	스 7~8장
215	왕하 25장, 렘 39~41장	245	겔 8~11장	275	스 9~10장
216	렘 42~45장	246	겔 12~14장	276	느 1~3장
217	렘 46~48장	247	겔 15~17장	277	느 4~7장
218	렘 49~50장	248	겔 18~20장	278	느 8~10장
219	렘 51~52장	249	겔 21~22장	279	느 11~13장
220	애 1~2장	250	겔 23~24장	280	말 1~4장
221	애 3~5장	251	겔 25~28장		
222	읍 1장	252	겔 29~32장		

<표6> 신약성경 목차

순서	범위	순서	범위	순서	범위
----	----	----	----	----	----

281	마 1~4장	310	요 9~11장	339	롬 15~16장
282	마 5~7장	311	요 12~13장	340	행 20:7~23장
283	마 8~10장	312	요 14~15장	341	행 24~26장
284	마 11~13장	313	요 16~17장	342	행 27~28장
285	마 14~16장	314	요 18~19장	343	엡 1~3장
286	마 17~20장	315	요 20~21장	344	엡 4~6장
287	마 21~23장	316	행 1~2장	345	빌 1~4장
288	마 24~25장	317	행 3~5장	346	골 1~4장
289	마 26~28장	318	행 6~9장	347	몬 1장
290	막 1~3장	319	행 10~12장	348	딤후 1~6장
291	막 4~6장	320	행 13장~15:35	349	딤후 1~3장
292	막 7~8장	321	행 15:36~18:22	350	딤후 1~4장
293	막 9~10장	322	살전 1~5장	351	히 1~4장
294	막 11~13장	323	살후 1~3장	352	히 5~10장
295	막 14~16장	324	갈 1~3장	353	히 11~13장
296	눅 1~2장	325	갈 4~6장	354	약 1~5장
297	눅 3~4장	326	행 18:23~19장	355	벧전 1~5장
298	눅 5~6장	327	고전 1~4장	356	벧후 1~3장
299	눅 7~8장	328	고전 5~8장	357	유 1장
300	눅 9~10장	329	고전 9~11장	358	요일 1~5장

301	눅 11~13장	330	고전 12~14장	359	요이 1장, 요삼 1장
302	눅 14~16장	331	고전 15~16장	360	계 1~3장
303	눅 17~18장	332	고후 1~4장	361	계 4~7장
304	눅 19~20장	333	고후 5~9장	362	계 8~11장
305	눅 21~22장	334	고후 10~13장	363	계 12~15장
306	눅 23~24장	335	행 20:1~6, 롬 1~3장	364	계 16~18장
307	요 1~3장	336	롬 4~7장	365	계 19~22장
308	요 4~6장	337	롬 8~11장		
309	요 7~8장	338	롬 12~14장		

조병호는 48시간 동안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다 들을 수 있다고 하면서, 그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놀랍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펄 벅의 《대지》라는 소설을 하루에 3장씩 약 3년에 걸쳐 읽는 것과 집중해서 며칠 밤을 새워 읽은 사람과는 감동의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크다는 것이다. 책을 한 번 잡았다 하면 한 2-3일 밤을 새워서라도 한꺼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감동도 받고 그 책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법이다. 또한 고전을 비롯한 다소 어려운 인문학 책이나 아주 두꺼운 분량의 전공서적을 읽는 좋은 독서 방법은 처음 한두 번은 빠른 시간 내에 전체를 읽어 그 내용을 먼저 파악하고 나서,

다시 천천히 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깊이 있게 읽는 방법이다.²

WARM-HEART

48시간 역사순 성경듣기는 역사순 ‘1년1독 통독성경’의 흐름에 맞춰 3박4일간에 걸쳐 총 48시간 동안 성경전체를 듣는 프로그램이다. 특별히 48시간 동안 성경전체를 27마당으로 나누어서 듣는데, 매회 시간분량은 90분~100분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성경전체를 27개의 마당으로 구분한 이유는 48시간이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성경전체를 효과적으로 통독하고 듣기 위함이다. 각각의 마당 시간을 90분~100분 정도로 진행하는 것이 전체 일정과 참석자들의 집중도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각되었기에 성경전체 365일의 분량을 27개의 마당으로 구분한 것이다.

각각 90분~100분으로 진행되는 27마당의 성경듣기는 각각의 범위에서 전체 이야기(Whole story), 분석(Analysis), 암송(Recitation), 묵상(Meditation),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Heart of God)을 모두 살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조병호는 이 부분을 <WARM-HEART>로 정리해 놓았다. <WARM-HEART>는 성경 속 사건들을 정확하게 이야기(story)로 먼저 공부하고, 그 내용을 분석한 후에 중요 구절을 외우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외운 요절을 가지고 늘 묵상하며 기도하면 시간이 흐른다 하여도 우리가 외운 성경 말씀의 귀한 요절들은 잊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성경은 과거의 책이 아닌 오늘 내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³

48시간 역사순 성경듣기는 성경 전체를 역사순으로 듣는 프로그램이면서 동시에 성경전체의 흐름을 <WARM-HEART>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장점까지 가지고 있

² 조병호, *48시간 역사순 성경듣기*, 22.

³ Ibid., 24-25.

다. 다시 말해, 성경을 들을 때,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WARM-HEART>의 내용을 지면상 다 실기가 어렵다. 하지만, 조병호의 ‘48시간 역사순 성경듣기 가이드북’에 자세히 나와있기에 이 책을 활용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샘플로 1마당의 <WARM-HEART> 내용을 아래에 정리하였다.

1마당 - 창세기 1장~창세기 30장 (일년일독 통독성경 1~10일)

전체 이야기 Whole Story (4분)

이제 창세기 1장에서 30장까지를 들을 것입니다. 창세기는 정말 가슴 떨리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떤 책이 ‘태초에’ (In the beginning)를 말할 수 있었습니까? 창세기를 통해 인류는 하루와 일주일이라는 개념을 배웠으며, 시간의 7분의 1과 재물의 10분의 1이라는 가장 고상한 개념을 배워 시간과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역사’로 지리적 배경을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들이 등장하고 지리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4명의 족장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을 만날 것입니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소개해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이제 48시간 역사순 성경듣기를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은 다 같이 소리 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경듣기 Bible Tongdok (72.7분)

<통독성경> 1-10일 | 창 1-30장 | pp.1-42 | 1.4배속

1일	창세기 1-2장	천지창조 - 심히 좋으신 하나님의 마음
2일	창세기 3-5장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
3일	창세기 6-9장	노아홍수 - 하나님의 눈물
4일	창세기 10-11장	생육하고 번성하여 흠어지는 민족
5일	창세기 12-14장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람의 순종
6일	창세기 15-17장	아브람의 기다림
7일	창세기 18-21장	복의 통로 아브라함
8일	창세기 22-24장	하나님의 친구가 된 아브라함
9일	창세기 25-27장	이삭의 양보하는 삶
10일	창세기 28-30장	하란으로 도망간 야곱

분석 Analysis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Genesis)는 ‘기원’, ‘원천’ 등을 의미하며,

모세가 죽기 전에 기록한 모세의 5권의 책(모세5경) 가운데 첫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으며 이 시기의 역사는 ‘원역사’ 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12장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의 4명의 족장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암송 Recitation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지라” (창 12:2-3)

묵상 Meditation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봄이 오면 언제나 나무의 가지마다 새순이 돋게 하시고, 여름에는 산천초목에 녹음이 짙푸르게 하시고, 가을에는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하시며, 겨울에는 온 세상을 덮는 아름다운 흰 눈과 함께 평안한 쉼을 주십니다. 이 자연의 순환은 언제나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를 바라보며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Heart of God

본문을 들으며 나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⁴

바이블 통트랙스 7

위에서 살펴본 대로 ‘48시간 역사순 성경듣기’는 48시간 동안 성경전체를 27마당으로 나누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성경전체의 흐름을 역사 순으로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27개의 마당을 좀 더 큰 틀인 조병호의 바이블 통트랙스 7으로 묶었다. 다시 말해 통트랙스 7의 분위기에 맞춰서 27개의 마당을 재배열했다는 말이다. 1마당부터 6마당까지는 ‘트랙1-모세오경’의 분위기로 묶었고, 7마당부터 19마당까지는 ‘트랙2-왕정 500년’의 분위기로, 20마당과 21마당은 ‘트랙3-페르시아 7

⁴ Ibid., 34-36.

권’ 분위기로, 22마당에서 24마당까지는 ‘트랙4-중간사 400년’ 분위기와 ‘트랙 5-사복음서’ 분위기로, 25마당과 26마당은 ‘트랙6-사도행전 30년’ 분위기로, 마지막 27마당은 ‘트랙7-공동서신 9권’의 분위기로 묶었다. 이렇게 27개의 마당을 좀 더 큰 틀인 7개의 트랙분위기로 묶음으로 성경전체의 큰 흐름을 놓치지 않고 성경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조병호가 구분한 7개의 트랙의 분위기 내용은 ‘48시간 역사순 성경듣기 가이드북’에 잘 나와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샘플로 트랙1의 분위기 내용을 아래에 정리했다.

통트랙 1 Tong Tracks - ‘모세5경’ (7분)

‘모세5경’은 모세가 쓴 5권의 책으로 66권 성경 전체를 볼 때 7개의 트랙 가운데 첫 번째 트랙입니다. ‘모세5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일컫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5권의 책을 주신 이유는 바로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이블 통(通)트랙스 7 가운데 첫 번째 트랙인 ‘모세5경’ 다섯 권 책의 분위기는 ‘제사장 나라 set-up’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후 그들이 제사장 나라를 세워 하나님과 세계 모든 백성 사이에 복의 통로가 되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애굽(이집트)에서 히브리 민족이라 불리게 된 그들로 하여금 제국을 미리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인 제사장 나라는 제국의 폐해를 온몸으로 체험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우는 제국이 아닌 제사장 나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후에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제사장 나라를 세우게 하시려고 시내 산에서 하늘로부터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은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 되는 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꿈꾸셨던 제사장 나라는 첫째,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입니다. 둘째, 이웃과 이웃 사이에 거룩과 나눔이 있는 나라입니다. 셋째, 민족과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기드온, 그리고 사무엘 등은 나라를 구한 영웅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신화에서처럼 영웅이나 신(神), 혹은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인 ‘제사장 나라’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을 꿈꾸었기에 왕이 되지 않으려 노력

까지 했던 것입니다. 성경의 7개 트랙 가운데 첫 번째 트랙인 ‘모세5경’을 통해 제사장 나라가 얼마나 멋있는 나라인지 이제부터 만나볼 것입니다.⁵

역사순 ‘1년1독 통독성경’ 음원파일

‘48시간 역사순 성경듣기’는 48시간 동안 27개의 마당으로 구성하여 진행하는데, 각 마당별로 성경듣기는 조병호가 낭독한 역사순 ‘1년1독 통독성경’의 음원파일을 활용하여 진행한다. 이 음원파일은 스마트폰 App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 스마트폰 ‘Play 스토어’에서 ‘1년 10번’ 또는 ‘조병호’로 검색하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App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음원파일은 재생속도가 1.4배속으로 되어 있다. 1.4배속의 음원파일이 너무 빠르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성경통독원 홈페이지(www.tongdok.net) ‘1년10번 성경듣기’ 항목으로 들어가 음원파일의 정상배속인 원배속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이 음원파일은 역사순 ‘1년 1독 통독성경’ 전체가 녹음된 것으로 365개의 MP3 파일로 구성되어 있다.

인도자

‘48시간 역사순 성경듣기’가 단체로 진행될 경우에는 전체순서를 인도할 인도자가 필요하다. 인도자는 주로 목회자들이 담당을 하게 되는데, 진행 타임테이블을 참고하면 48시간 인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인도자가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은 각 마당별로 진행해야 하는 ‘전체이야기’ 설명과 7개의 트랙 설명이다. ‘전체이야기’는 4분 정도, ‘7개의 트랙’은 7분 정도로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용과 시간면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통독원에서 진행되는 목회자를 위한 ‘렉처러코스’ 과정이 도움이 될 것이다. ‘렉처러코스’는 목회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데, 성경통독 지도자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⁵ Ibid., 33-34.

또한 인도자는 역사순 ‘1년1독 통독성경’의 음원파일을 컴퓨터상에서 재생이 잘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하며, 원활하게 재생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재생에 있어서도 다양한 속도로 재생을 할 수 있는데, 재생속도는 ‘Windows Media Player’에서 다양한 속도로 조절이 가능하다.

진행 타임테이블

위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48시간 역사순 성경듣기는 성경전체를 27마당으로 나누어 듣는 프로그램인데, 전체 진행 타임테이블은 다음과 같다.

<표7> 48시간 역사순 성경듣기 타임 테이블⁶

		시간	<1년1독 통독성경> 범위	트랙설명	내용 설명	통독	총 시 간	
첫	1	am. 10:30~12:00	찬양, 기도: 3분				72.7 분	86.7분
			1~10일(창 1~30장)	트랙1-모세5경: 7분	4분			
째		pm. 12:00~12:50	점심식사					
	2	12:50~2:20	11~22일(창 31장~출 13장)	•	4분	86.4 분	90.4분	
날		2:20~2:30	휴식시간					
	3	2:30~4:00	23~35일(출 14장	•	4분	86.4	90.4분	

⁶ Ibid., 30.

			~레 10장)			분	
	4:00~4:10	휴식시간					
4	4:10~6:00	36~52일(레 11장 ~민 21장)	•	4분	105.8 분	109.8 분	
	6:00~6:50	저녁식사					
5	6:50~8:40	53~67일(민 22장 ~신 28장)	•	4분	107.3 분	111.3 분	
	8:40~8:50	휴식시간					
6	8:50~10:30	68~80일(신 29장 ~삿 5장)	•	4분	92.9 분	99.9분	
		기도회: 3분					
7	am. 6:30~8:00	찬양, 기도: 3분				89분	
		81~90일(삿 6장~ 삼상 10장)	트랙2-왕정 500년: 7분	4분	75분		
	8:00~8:50	아침식사					
8	8:50~10:20	91~104일(삼상 11장~삼하 10장)	•	4분	82.4 분	86.4분	
		휴식시간					
9	10:30~12:00	105~116일(삼하 11장~왕상 10장)	•	4분	81.7 분	85.7분	
		pm. 12:00~12:50	점심식사				

둘

째

날

	10	12:50~2:20	117~130일(잠 1장~옴 3장)	•	4분	85.7분	89.7분	
		2:20~2:30	휴식시간					
	11	2:30~4:00	131~144일(옴 4장~시 33편)	•	4분	86.4분	90.4분	
		4:00~4:10	휴식시간					
	12	4:10~6:00	145~156일(시 35~134편)	•	4분	104.6분	108.6분	
		6:00~6:50	저녁식사					
	13	6:50~8:40	157~170일(시 135편~암 9장)	•	4분	107.3분	111.3분	
		8:40~8:50	휴식시간					
	14	8:50~10:30	171~184일(호 1장~사 35장)	•	4분	93.2분	100.2분	
			기도회: 3분					
셋 째 날	15	am. 6:30~8:00	찬양, 기도: 3분				81.9분	88.9분
			185~197일(왕하 18장~왕하 23장)	•	4분			
		8:00~8:50	아침식사					
	16	8:50~10:20	198~210일(습 1장~렘 28장)	•	4분	85분	89분	

		10:20~10:30	휴식시간				
17		10:30~12:00	211~223일(렘 29장~대상 3장)	•	4분	86.3분	90.3분
		pm. 12:00~12:50	점심식사				
18		12:50~2:20	224~236일(대상 4장~대하 17장)	•	4분	88.2분	92.2분
		2:20~2:30	휴식시간				
19		2:30~4:00	237~248일(대하 18장~겔 20장)	•	4분	85.1분	89.1분
		4:00~4:10	휴식시간				
20		4:10~6:00	249~263일(겔 21장~단 9장)	트랙3-페르시아 7권: 7분	4분	96.4분	107.4분
		6:00~6:50	저녁식사				
21		6:50~8:40	264~280일(단 10장~말 4장)	•	4분	105.9분	109.9분
		8:40~8:50	휴식시간				
22		8:50~10:30	트랙4-중간사 400년: 7분				97.3분
			281~290일(마 1장~막 3장)	트랙5-4복음서: 7분	4분	76.3분	
			기도회: 3분				
넷	23	am. 6:30~8:00	찬양, 기도: 3분				90.6분

째		291~303일(막 4 장~눅 18장)	•	4분	83.6 분		
		8:00~8:50	아침식사				
날	24	8:50~10:20	304~317일(눅 19 장~행 5장)	트랙6-사도행 전 30년: 7분	4분	79분	90분
		10:20~10:30	휴식시간				
	25	10:30~12:00	318~332일(행 6 장~고후 4장)	•	4분	84.3 분	88.3분
		pm.12:00~12:50	점심식사				
	26	12:50~2:20	333~348일(고후 5장~딤편 6장)	•	4분	88.9 분	92.9분
		2:20~2:30	휴식시간				
	27	2:30~4:20	349~365일(딤편 1 장~계 22장)	트랙7-공동서 신 9권: 7분	4분	90.1 분	104.1 분
			기도회: 3분				

실행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48시간 역사순 성경듣기’는 3박4일 동안 48시간을 활용하여 성경전체를 27개의 마당으로 나누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27개의 마당 앞뒤로는 휴식시간이나 식사시간이 배정되어 있다. 각 마당별 진행시 먼저 <WARM-HEART>의 내용을 4분 정도 살펴본다. <WARM-HEART>의 내용 중에서 그 마당에 해당되는 성경범위의 ‘전체이야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된다. 이렇게 한 이후에

해당 범위의 성경을 조병호가 녹음한 역사순 ‘1년1독 통독성경’ 음원파일을 들려 준다. 그러면, 참석자들은 성경의 내용을 귀로 듣고 눈으로 따라가면서 성경듣기에 참여할 수 있다.

48시간이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성경전체 내용을 모두 들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배분이 정확해야 하며, 인도자와 참석자 모두가 시간을 엄수해야 한다. 48시간 안에 성경전체를 듣기 위해서 역사순 ‘1년1독 통독성경’의 음원파일의 재생 속도를 일자별로 조절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첫째날에는 1.4배속, 둘째날에는 1.5배속, 셋째날에는 1.6배속, 넷째날에는 1.7배속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시간 배분과 관련해서는 위에서 제시한 ‘48시간 역사순 성경듣기’ 타임 테이블을 참고하면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적용

이상으로 살펴본 ‘48시간 역사순 성경듣기’의 실체는 3박4일 동안 48시간을 활용하여 진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진행할 수도 있고, 가정이나 개인이 진행할 수도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부분은 3박4일 동안 48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건상 3박4일 동안 집약적으로 48시간을 확보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장에서는 3박4일 동안 집약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적용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시간을 집약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3박4일 동안 진행을 하면 효과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이미 여러 번 언급을 했듯이, ‘48시간 역사순 성경듣기’는 성경전체를 27개의 마당으로 나누어서 성경을 듣는 프로그램이다. 27개의 마당을 형편과 상황에 맞게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적용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

27일 동안 진행방법

이 방법은 27개의 마당을 하루에 1마당씩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루에 2시간 정도 확보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 27개의 마당이 각각 90분에서 100분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2시간 정도이면 1개의 마당을 진행하기에 여유가 있다. 진행 방식은 위에서 살펴본 방식과 동일하다.

매일 2시간 이상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음원파일 재생속도를 여유있게 설정해도 좋겠고, 각 마당별 ‘전체이야기’와 트랙설명을 하는 시간을 다소 늘리는 방법도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성경듣기를 다 끝낸 이후에 참석자들의 짧은 나눔과 기도회 진행도 가능할 것이다.

27주간 진행방법

이 방법은 27일 동안 진행하는 방법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밖에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27주로 변형하여 진행하는 방법으로 진행방식은 27일 진행방법과 동일하다.

2주간 진행방법

이 방법은 하루에 2마당씩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루에 3~4시간 정도 확보하면 가능하다. 전체적인 진행방식은 27일 진행방법과 동일하다.

14주간 진행방법

이 방법은 한 주에 2마당씩 진행하는 방식으로 한 주에 3~4시간 정도 확보하면 가능하다. 전체적인 진행방식은 27일 진행방법과 동일하다.

이상으로 형편과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몇 가지 살펴보았다. 이 외에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1년 10번 성경듣기

준비

‘1년 10번 성경듣기’의 준비는 ‘48시간 역사순 성경듣기’의 준비와 대동소이하다. 역사순 ‘1년1독 통독성경’과 역사순 ‘1년1독 통독성경’ 음원파일을 준비하면 된다. 성경전체를 1년에 10번 듣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을 향한 기대감과 사모함이 있어야 하며,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 하겠다.

성경 전체를 1년에 10번 듣기 위해서는 평균 36일에 한 번씩 들어야 한다. 365일 분량으로 구분되어 있는 역사순 ‘1년1독 통독성경’과 음원파일을 활용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365일 분량을 36일 정도에 모두 듣기 위해서는 하루에 10일치 분량을 들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한 계획이 필요하다. 1년에 10번 성경듣기를 위한 타임테이블은 다음과 같다.

<표8> 1년 10번 성경듣기를 위한 타임테이블

구분	시작일	완료일
1번	1월 1일	2월 5일
2번	2월 6일	3월 13일
3번	3월 14일	4월 18일
4번	4월 19일	5월 24일
5번	5월 25일	6월 29일
6번	6월 30일	8월 4일

7번	8월 5일	9월 9일
8번	9월 10일	10월 15일
9번	10월 16일	11월 20일
10번	11월 21일	12월 26일

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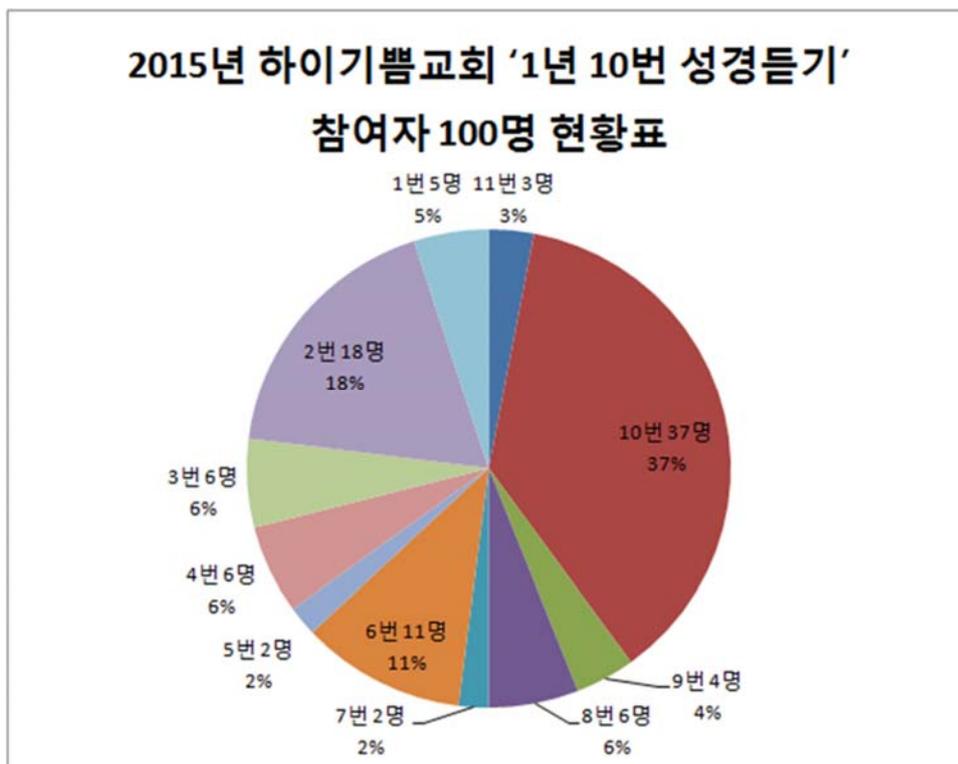
‘1년 10번 성경듣기’의 실행 방법은 그다지 어렵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의지와 끈기이다.

- a. 전체 타임테이블을 활용하여 매일 들어야 할 분량 확인하기
 - 매일 들어야 할 10일치 분량의 범위를 확인한다.
- b. 하루 24시간 중 60분~90분 정도의 시간을 확보하기
 - 성경듣기는 성경읽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 확보가 수월하다.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듣기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1년 10번 성경듣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출퇴근 시간과 휴식시간, 산책시간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 c. 정한 시간에 10일치 분량 듣기
 -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10일치 분량의 성경을 듣는다. 배속 조절의 경우에는 초창기에는 적응하는 차원에서 느린 배속으로 듣는 것이 효과적이며, 차츰 적응이 돼 가는 상황을 고려하여 배속을 빠르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 d. 기타 사항
 - 성경을 다 듣고 난 후에, ‘1년1독 통독성경’에 들어있는 일자별 ‘통독본문 내용정리’를 읽으면 그날 들었던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 잠자기 전에 그날 들었던 말씀의 큰 줄거리를 그려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적용

이제 ‘1년 10번 성경듣기’에 대한 적용부분을 다뤄보고자 한다. 특별히 이 부분은 필자가 사역하고 있는 하이기쁨교회에서 2015년 한 해 동안 진행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015년에는 하이기쁨 성도 중 100명이 ‘1년 10번 성경듣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1년 동안 진행 결과에 대한 현황표는 아래와 같다.

<표9> 2015년 하이기쁨교회 ‘1년 10번 성경듣기’ 참여자 100명 현황표



위의 표를 보면, ‘1년 10번 성경듣기’에 참여한 100명 중에 성경을 들은 횟수가 1번에서 11번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10번 이상 들은 사람이 40명으로 전체 참여자의 40%에 해당된다. 개별 항목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분포되어 있는 부분도 ‘10번 들은’ 항목인데, 37명이 여기에 해당된다. 성경을 들은 횟수가 3번 이하로 결과가 저조한 사람은 모두 29명으로 전체 참석자의 29%에 머물렀다. 반면, 6번 이상 들은 사람은 모두 63명으로 전체 참석자의 2/3에 가까운 63%를 차지했다. 위의 현황표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10번 이상 들은 40명 중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는 모두 5명으로 12.5%에 해당된다.⁷ 고무적

⁷ 10번 들었던 37명 중에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는 4명 이었고, 11번 들었던 3명 중의 1명이 초등학생 이었다.

인 수치라 할 수 있다.

위의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을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1년에 10번씩 성경을 듣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체 참여자의 40%가 10번 듣기에 성공했다. 이 결과를 놓고 1년에 10번 듣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이제 1년에 10번씩 성경을 듣는 일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막연한 꿈이 아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도전하여 성공할 수 있는 현실인 것이다.

둘째는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이와 유아들도 1년에 10번씩 들을 수 있다는 점이다. 위에서 살펴본대로 10번 이상 들은 40명의 사람들 중에서 5명이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이와 유아였다. 어린이와 유아도 ‘1년 10번 성경듣기’가 가능하다. 심지어 글을 전혀 읽지 못하는 아이들도 부모의 도움을 조금만 받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어린이들이 가능한데 하물며 성인들이야 얼마나 더 쉽겠는가?

셋째는 ‘통(通)성경 방법’과 ‘듣기 방식’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성경을 역사순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통(通)성경 방법’은 성경의 사건을 재미있게 이어지는 하나의 이야기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듣기 방식’은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능하고, 언제 어느 때든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래서 ‘통(通)성경 방법’과 ‘듣기 방식’을 통한 성경듣기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제 V 장

성경듣기 참여자 심층 인터뷰

인터뷰 개요

성경듣기 참여자 심층 인터뷰는 성경통독원에서 진행하는 ‘48시간 역사순 성경듣기’ 참여자와 하이기쁨교회에서 진행하는 ‘1년 10번 성경듣기’ 참여자 중에서 4명을 선별하여 진행했다. ‘48시간 역사순 성경듣기’에 참여한 인터뷰 대상자는 40대 후반의 남성 목사와 30대 초반의 남성 청년이다. ‘1년 10번 성경듣기’에 참여한 인터뷰 대상자는 40대 초반의 집사 가정과 30대 초반의 여성 집사이다. 인터뷰 대상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서울, 경기지역이며, 인터뷰 방법은 일대일 서면 인터뷰로 진행했다. 인터뷰 진행시기는 2016년 1월 4일에서 14일이었다.

인터뷰 내용

1. ‘48시간 역사순 성경듣기’ 참여 목회자 인터뷰 내용

‘48시간 역사순 성경듣기’ 참석자 중 인터뷰를 진행한 목회자는 49세의 목회자로 담임목회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인터뷰를 진행한 질문과 답은 아래와 같다.

a. 48시간 역사순 성경듣기는 어떤 계기로 참석하게 되었는가?

: 성경듣기 인도자로 참석하게 되었다.

b. 48시간 역사순 성경듣기에는 몇 번 정도 참석했나?

: 10회 이상 참석하였다.

c. 48시간 역사순 성경듣기에 참여한 후,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1) 성경에 대한 관점과 이해도 측면

: 성경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짧은 48시간 안에 자주 듣다보니 성경 전체에 대한 맥을 잘 이해하게 되었다.

2) 하나님과의 관계(신앙적 측면)

: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장면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말씀을 경험하는 중에 하나님을 더욱 깊게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다. 인간을 향해 끊임 없는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

3) 목회적 측면(교회 프로그램 적용)

: 교회에서 48시간 프로그램을 완전히 적용하기 위해서는 성도들과 충분한 시간을 같이 만들어야 할 것이다. 혹은 27개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나누어서 매일 혹은 주별 단위로 해도 좋을 것 같다.

4) 설교 및 성경공부 인도 측면

: 설교 때 성경전체를 이해하고 필요한 흐름을 전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성경공부 때도 마찬가지로 전체에서 부분, 혹은 부분에서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것은 통독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성경학교(패밀리 스쿨)와 연결하면 매우 좋을 것이다.

d. 성경을 부분이 아니라, 66권 전체를 통으로 볼 때의 장점과 유의한 점은 무엇인가?

: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 로 연결시켜서 이해하고 말하고 전달할 수 있는 유익이 있다. 또한 어느 '부분' 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더라도 앞뒤의 이야기를 연결해서 전체 이야기를 다룰 수 있는 장점도 있다.

e. 성경의 장르별 편제와 비교했을 때 역사순 성경의 장점과 유익한 점은 무엇인가?

: 성경을 역사적인 인물의 순서나 혹은 공간의 이동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서 좋다.

역사의 흐름 끝 이야기의 흐름을 더욱 완성도 있게 경험하게 한다.

f. 성경읽기와 비교했을 때 성경듣기의 장점과 유익한 점은 무엇인가?

: 읽는 것은 중간에 멈추거나 조금 더딘 경향이 있는데, 듣는 것은 일단은 좀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어서 좋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마음에 그려가며 들을 수 있어서 좋다.

g. 역사순 성경듣기에 대한 앞으로의 각오와 다짐은 무엇인가요?

: 앞으로도 시간을 내어 자주 듣고 싶다.

2. ‘48시간 역사순 성경듣기’ 참여 청년 인터뷰 내용

‘48시간 역사순 성경듣기’ 참석자 중 인터뷰를 진행한 청년은 32세의 남성으로 모태신앙이며 광고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는 청년이다. 인터뷰를 진행한 질문과 답은 아래와 같다.

a. 48시간 역사순 성경듣기에는 어떤 계기로 참석하게 되었나?

: 교회에서 목회자의 소개를 받고 참여하게 되었다.

b. 48시간 역사순 성경듣기에는 몇 번 정도 참석하였나?

: 1번 참여했다.

c. 48시간 역사순 성경듣기에 참여한 후,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1) 성경에 대한 관점과 이해도 측면

: 성경이 66권으로 분절된 책임과 동시에 1권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2) 하나님과의 관계(신앙적 측면)

: 성경 전체를 여러 번 들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성경의 내용으로

기도할 마음을 갖게 되었다.

3) 이웃과의 관계(사회생활 측면)

: 하나의 현상만 가지고 남을 평가하지 않게 되었으며, 성경이 어떤 책인지 잘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을 갖게 되었다.

4) 교회생활 측면

: 성경 공부에 더 힘쓰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

5) 기타

: 작은 것을 보고 부화뇌동하지 않는 자세를 갖게 되었다.

d. 성경을 부분이 아니라, 66권 전체를 통으로 볼 때의 장점과 유익한 점은 무엇인가?

: 성경을 어느 한 부분도 놓치지 않게 되고, 각 권별 내용이 하나의 이야기로 묶여져 전체 줄거리와 부분별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항상 전체를 먼저 보는 습관이 길러지게 되었다.

e. 성경의 장르별 편제와 비교했을 때 역사순 성경의 장점과 유익한 점은 무엇인가?

: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성경의 사건들을 역사순으로 연결해서 듣다 보니 기억하기가 훨씬 쉬워졌다. 또한 내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대로 하는 아전인수식 해석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었다.

f. 성경읽기와 비교했을 때 성경듣기의 장점과 유익한 점은 무엇인가?

: 성경과 가까이 할 시간이 늘어남으로 시간 활용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내용 중 시각에서 놓치는 부분을 청각이 보완하는 유익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g. 역사순 성경듣기에 대한 앞으로의 각오와 다짐은 무엇인가?

: 성경듣는 일을 더 습관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주변에 널리 알리고 싶다.

3. ‘1년 10번 성경듣기’ 참여 가정 인터뷰 내용

‘1년 10번 성경듣기’ 참석자 중 인터뷰를 진행한 가정은 40대초반 부부와 초등학생 딸이 있는 가정으로 부모들의 신앙연수는 20~25년 정도이다. 인터뷰를 진행한 질문과 답은 아래와 같다.

a. 1년 10번 성경듣기는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나?

: 2~3년 전쯤 1년 10번 성경 듣기에 대한 교회 내에서의 움직임이 체계적으로 시작되어 동참하게 됐다.

b. 1년 10번 성경듣기에 참여하기 이전에는 성경 공부와 읽기를 어떤 방법으로 했나?

1) 남편 - 성경에 관한 도서를 참고하거나 필요시 부분적으로 읽었다.

2) 아내 - 성경을 동경하며 궁금해 어찌지 못할 땐 표지를 열어 창세기부터 읽어 내려가곤 했지만, 그렇게 창세기만 여러 번이었다. 그리고 가끔은 시편이나 잠언, 4복음서 정도여서 딱히 ‘공부’라 할 것도, ‘읽었다’ 말할 것도 못 되는 것 같다.

3) 딸 - 2~3살즈음 오디오성경을 듣긴 했으나 적극적으로 듣지 못해 어느 정도를 얼마간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c. 1년 10번 성경듣기에 참여하기 이전에 성경 전체를 몇 번 읽거나 들었나?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 전체 몇 번? 1년에 평균 몇 번 정도?)

1) 남편 - 신앙생활 기간을 통틀어 3번 정도. 2014년엔 자체적으로 2번 들었다.

2) 아내 - 2번에서 밝힌 것처럼 산발적으로 들어왔는데, 2013년엔 4번을 읽었으나 힘들고 억지스러운 면이 많았다.

3) 딸 - 유아 시절 오디오 성경이나 이후 성경 동화류를 조금 접했을 뿐이다.

d. 1년 10번 성경듣기를 몇 년 쯤 해오고 있으며 전체 몇 번 정도 들었나?

1) 남편 - 2015년부터 2년째 참여하고 있는데, 2015년에는 10번 들었고, 2016년에 도계속 참여하여 진행중이다.

2) 아내 - 2014년부터 3년째 참여하고 있는데, 2014년과 2015년에는 10번 들었고, 2016년에도 계속 참여하여 진행중이다.

3) 딸 - 2015년부터 2년째 참여하고 있는데, 2015년에는 10번 들었고, 2016년에도 계속 참여하여 진행중이다.

e. 1년에 10번 성경듣기를 위해 시간활용을 어떻게 했나?

(어떤 방법으로 어느 시간대에 성경을 들었는가?)

: 직장에 다닐 때에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밥 먹으며, 출·퇴근 시간 전철에서, 퇴근 후 청소기 소리나 설거지 물소리가 날 때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이용했다. 직장을 그만두고 주부로 생활할 때에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밥 먹으며,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고 이후의 시간에 청소기 소리, 설거지 물소리, 눈앞의 과제를 피한 대부분의 시간을 이용했다.

f. 1년 10번 성경듣기에 참여한 후,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1) 성경에 대한 관점과 이해도 측면

: 내가 알고 있었던 성경 이야기의 조각 조각을 연결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조각의 위치를 알게 되었다. 어떻게 성경이 얇은 책이라는 것인지를 알게 됐고, 왜 소리 내서 읽고 반복해서 들을 만한 내용의 책이라는 것인지 알 것 같고, 성경에 담긴 모든 이야기를 이해하고 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게 됐다. 무엇보다 뿌듯하고 좋은 것은 주일 설교가 들릴 만큼 귀의 성능이 좋아졌다는 느낌이 생겼다.

2) 하나님과의 관계(신앙적 측면)

: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가깝고 유연해지게 되었다.

3) 이웃과의 관계(사회생활 측면)

: 성경을 10번씩 들은 이후에는 사람이 쉽게 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보니 관계 맺기에 대한 부담은 여전하긴 하지만, 그 관계로 인한 피곤에서는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 듯 하다.

4) 교회생활 측면

: 주일이 기다려지며 주일예배 설교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 삶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공부하는 것을 즐기는 면이 있다 보니 이전에도 앉아 있는 시간이 그리 고역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자세히 알고자 하는 마음, 확실히 알고 싶은 마음이 나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한다.

5) 가정생활 측면

: 삶이 조금은 가벼워졌고 뽀족한 부분이 어느 정도 뭉툭해졌다 말하고도 싶고, 이런저런 반응들에 있어 조금은 너그러워진 것 같다고도 말하고 싶다. 마음에 여유가 생긴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6) 기타

: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말의 의미를 알 것 같고, 그렇게 충분해질 삶이 어떨지 궁금해지고 기대가 된다.

g. 성경을 부분이 아니라, 66권 전체를 통으로 볼 때의 장점과 유의한 점은 무엇인가?

: 하나님에 대해 수평적 시각을 갖게 되었다. 통으로 보니 神人이신 예수님이 너무도 절절하게 느껴진다. 커다란 하나님의 가슴(마음)이 벅차기도, 인간적 고통을 고스란히 받아내신 예수님이 아프기도 하다. 저 높이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 여기 낮은 땅 내 옆에 계실 수도 있겠다 자주 생각하게 되어 나는 이제 하나님과 많이 친해졌다는 느낌이 든다. 그 느낌이 참 좋고, 더 깊은 친밀함을 기대하게 된다.

h. 성경의 장르별 편제와 비교했을 때 역사순 성경의 장점과 유의한 점은 무엇인가?

: 아무래도 시점이 뒤섞이지 않고 사건의 순차적 배열을 따라가다 보니 좀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i. 성경 ‘읽기’ 와 비교했을 때 성경 ‘듣기’ 의 장점과 유익한 점은 무엇인가?

: 표면적으로는 책을 들 수고도, 행간을 놓칠까 하는 긴장이 없다. 그리고 그것이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강점으로 이어지는 듯하다. 책을 읽는 중에도 우리는 물을 마시거나 아이의 물음에 대답하는 등 수많은 반응을 견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읽기의 행위는 중단될 수밖에 없는데 듣기는 이러한 불편으로부터 자유롭다. 결국 듣기는, 그 시간이 하루가 완벽하게 끝난 한밤중에 국한되지 않고 소음이 없다면 언제나 가능해 끝을 보기에(한 번씩의 완료), 그것으로 복돋음을 얻기에도 읽기와는 견줄 수 없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j. 가족 전체가 1년 10번 성경듣기에 참여했을 때, 자녀신앙교육의 장점과 유익한 점은 무엇인가?

: 기간 내내 어떠한 부담이나 거부감도 없이 따라가는 것을 보며 자녀에 대한 교육적 효과는 역시 부모가 그 모습을 보이고 자녀가 자발적으로 따를 때 극대화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신하고 확인하였다. 함께 들었기에 함께 말할 수 있었고, 아이는 아이대로 나는 나대로 이전에 단편적으로 습득했던 것들을 제자리에 맞게 정리해 볼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아이에게서, ‘책(만화성경 파워바이블)에서 읽었던 게 여기서 이렇게 만나지는구나’ 라는 인식적인 반응을 확인했으며, 그럴 때마다 오고 가는 이야기가 생기는 것도 좋았다. 같이 성경을 들었는데 어땠느냐고 물으니 아이가 고백한다. “실감나서 좋았어요!!”

k. 1년 10번 성경듣기에 대한 앞으로의 각오와 다짐은 무엇인가?

: 나는 앞으로도 성경듣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고, 횟수를 거듭함에 따라 더 깊이 생동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중국에는 그렇게도 목말라 했던 사람의 마음을

홀쩍 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가슴 떨려하며 살 것이다. 반드시!

4. ‘1년 10번 성경듣기’ 참여 성도 인터뷰 내용

‘1년 10번 성경듣기’ 참석자 중 인터뷰를 진행한 성도는 32세 여성 집사로 신앙연수는 모태신앙이며 주부이다. 인터뷰를 진행한 질문과 답은 아래와 같다.

a. 1년 10번 성경듣기는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나?

: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7년째 1년 10번 성경듣기 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처음에는 과연 가능한 일인가 하는 의문이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매년 제 나름대로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다. 10번 성경을 들은 해도 있었지만 대부분 그러지 못하고 해를 마감하였다. 그러던 중, 2년여 전부터 교회 목사님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는 말씀을 토대로 성경듣기 운동을 더욱 강조하셨고, 작년에 아쉽게 9번을 듣고 마감하여 올해는 10번을 꼭 들으리라 다짐하였다.

b. 1년 10번 성경듣기에 참여하기 이전에는 성경 공부와 읽기를 어떤 방법으로 했나?

: 스무 살 때, 교회 청년부에서 성경통독집회에 참석하여 기존의 성경이 역사순이 아닌 장르별로 편제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부터 1년에 1번씩 역사순서대로 성경을 읽고자 노력했으며, 눈으로나 소리 내서 성경 본문을 읽었다.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는 매일 큐티를 활용했다.

c. 1년 10번 성경듣기에 참여하기 이전에 성경 전체를 몇 번 읽거나 들었나?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 전체 몇 번? 1년에 평균 몇 번 정도?)

: 스무 살 이후부터는 매년 평균 1번씩 성경 전체를 읽었다. 1년 10번 성경듣기 이전까지 대략 총 7번 정도 성경 전체를 읽었다.

d. 1년 10번 성경듣기를 몇 년째 해오고 있으며 전체 몇 번 정도 들었나?

: 1년 10번 성경듣기는 6년째 해오고 있으며, 총 44번 정도 들었다.

e. 1년에 10번 성경듣기를 위해 시간활용을 어떻게 했나?

(어떤 방법으로 어느 시간대에 성경을 들었는가?)

: 스마트폰 어플로 성경을 들었고, 출퇴근길 등 이동 시간은 모두 성경 듣는 시간으로 활용했다. 작년에는 임신을 하고 9월에 출산을 했는데, 출산 이후에는 아기와 함께 성경을 듣기 위해 아기가 분유 먹는 시간에 성경을 함께 들었다. 이동 시간이나 식사 시간 등 하루에 꼭 사용하는 시간을 정해 성경을 들으니 규칙적으로 성경듣기를 할 수 있었다.

f. 1년 10번 성경듣기에 참여한 후,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1) 성경에 대한 관점과 이해도 측면

: 성경을 부분이 아닌 전체로 보고, 역사 순서대로 듣고 읽었을 때 성경을 이해하기 쉽다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이에 성경은 얇은 책이며, 소리 내서 읽을 책, 1년에 10번 들을 책,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 개인·가정·나라 이야기가 담긴 책이라는 생각에 동의하게 되었다. 성경은 깊고도 넓어 완벽히 알 수 없지만, 반복해서 들을수록 성경의 전체 이야기가 더 와 닿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기에 더욱 열심히 듣고 읽어 공부할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2) 하나님과의 관계(신앙적 측면)

: 1년에 10번 성경듣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적이 있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커서 하나님의 공의나 공휼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적었다. 하지만 1년 10번 성경듣기를 하고 난 후,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닌 기록된 하나님을 믿어야 함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깊어짐을 경험했다. 성경을 통한 기도도, 깊은 묵상도, 정성어린 찬양도 모두 성경을 열심히 들을수록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3) 이웃과의 관계(사회생활 측면)

: 과거의 나는 때로 남을 정죄하는 태도를 지니곤 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도덕적 기준 등을 남에게 적용하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는 판단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성경듣기를 하고 난 후, 그 부분이 큰 죄였고, 교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는 것을 가장 큰 기도제목으로 세우게 되었고, 노력하다 보니 이웃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이해하고 포용하는 따뜻한 시선으로 바뀌게 되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면서 무엇보다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고 싶다는 넉넉한 마음이 생겼다.

4) 교회생활 측면

: 나 자신이 곧 교회라는 생각을 성경을 통해 배우고, 각 교회가 모여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 공동체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다. 매주일 예배가 기대되고 기다려지며, 주어진 사명에 감사하며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또한 가족이 함께 주일성수를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깨닫게 되었고, 주위에 믿지 않는 친구나 가족들을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커졌다.

5) 기타

: 출산 전에 논술지도사로 방과후 교사 일을 한 적이 있다. 학생들에게 논술을 가르치면서 자연스럽게 성경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종교에 상관없이 아이들이 있는 그대로의 역사 이야기로 성경을 받아들이고 흥미롭게 듣는 것을 경험했다. 이후 성경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책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제 분야에서 성경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

g. 성경을 부분이 아니라, 66권 전체를 통으로 볼 때의 장점과 유익한 점은 무엇인가?

: 성경을 부분으로 읽을 때는 전체의 성경 이야기를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무엇보다 부분부분 쪼개 읽을 때, 그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누가 한 말인지조차 잘 모르고 넘

어가 성경을 오해하기도 했다. 때문에 성경 66권 전체를 통으로 볼 때의 가장 큰 장점과 유익한 점은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 전체의 이야기를 읽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성경은 66권이되, 한 권이라는 생각에 적극 동의하고 성경을 볼 때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h. 성경의 장르별 편제와 비교했을 때 역사순 성경의 장점과 유익한 점은 무엇인가?

: 역사순 성경의 장점과 유익한 점은 성경을 이해하는 지름길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장르별 편제도 의미가 있지만,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예레미야가 느헤미야보다 150년 전 사람임에도 느헤미야부터 성경을 읽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마치 분리된 책처럼 느꼈던 적도 있었는데, 역사순으로 성경을 읽고 난 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오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목상할 수 있게 되었다.

i. 성경읽기와 비교했을 때 성경듣기의 장점과 유익한 점은 무엇인가?

: 자녀를 키우다 보니 듣기의 장점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다. 많은 엄마들이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좋은 이야기며, 음악을 들려주며 태교를 하는 것은 듣기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에 아직 말하지 못하고, 글을 읽지 못하는 아기와 함께 매일 성경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듣기의 장점이자 유익한 점이라 생각한다. 또한 성경읽기는 개인의 컨디션이나 생활방식에 따라 집중도가 떨어지거나 매일 생활화 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도 하지만, 성경듣기는 움직이면서 들을 수 있기에 개인의 컨디션이나 생활방식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규칙적으로 성경듣기를 생활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이 반복되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나 신앙생활에서도 경청하는 자세를 갖게 되었다.

j. 1년 10번 성경듣기에 대한 앞으로의 각오와 다짐은 무엇인가?

: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는 말씀을 진심으로 믿는다. 그렇기에 매일 자녀와 함께

성경을 들으며 자녀에게 성경을 이야기하는 부모가 되고 싶다. 이제 1년 10번 성경 듣기는 불가능하거나 부담되는 일이 아니라 매우 자연스럽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임을 되새기며, 더 열심히 말씀을 듣고 읽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다.

결과 분석

‘48시간 역사순 성경듣기’의 장점

‘48시간 역사순 성경듣기’ 참석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종합해보면, 큰 틀에서 5가지로 장점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성경의 전후 맥락이 바로 연결되어 성경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짧은 48시간 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전체를 듣게 됨으로,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구약 중반과 후반, 그리고 신약을 통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생생한 장면들을 목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에 주신 열방을 향한 꿈과 약속이 성경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생생한 현장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셋째는, 성경 전체를 통해 인간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넷째는,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생각과 성경이 66권이면서 동시에 1권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점이다. 마지막 다섯째는, 성경전체를 들었다는 뿌듯함과 ‘여러 번 들을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계도 이러한 자신감을 알리고 싶은 마음까지 생기게 되었다.

‘1년 10번 성경듣기’의 장점

하이기쁨교회에서 2015년 한 해 동안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년 10번 성

경듣기' 현황표를 보면, 1년에 6번 이상 들은 사람이 63명으로 전체 참석자의 63%를 차지하였고, 1년에 10번 이상 들은 사람은 40명으로 전체 참석자의 40%를 차지하였다. 성경을 1년에 1번 듣는 것도 쉽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 통(通)성경 방법을 통해 성경을 듣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통계라 할 수 있다. '통(通)성경 방법론' 과 '듣기 방식' 이 함께 묶여짐으로 나올 수 있는 결과인 셈이다.

'1년 10번 성경듣기' 참석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종합해보면, 큰 틀에서 5가지로 장점을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는, 성경에 대한 정확한 시각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1년 10번 성경듣기' 참석자들은 성경이 얇은 책이며, 소리내서 읽을 책이며, 1년 10번 들을 책이며,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이며, 개인, 가정, 나라 이야기를 담은 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성경이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책임을 깨닫게 되었다. 둘째는, 신앙과 교회생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이다. 성경을 반복해 들음으로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일예배 설교말씀이 정확하게 이해되며 들리기 시작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깊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교회봉사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셋째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이다. 성경전체에 나타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 또한 하나의 현상만을 가지고 이웃을 평가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전체를 보며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따뜻한 시선을 갖게 되었다. 넷째는, 가정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이다. 부모가 성경을 열심히 듣다보니 자연스럽게 자녀가 따라하게 됨으로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고, 자녀가 성경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실감나서 좋았다" 라고 반응하게 되었다. 또한 가족 구성원들 간에 서로에 대한 시선이 너그러워

지고 여유가 생기게 되었다. 마지막 다섯째는, 내가 상상한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점이다. 인간의 마음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에 가슴떨려하며 집중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함으로 성경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통(通)성경 방법론을 통한 성경듣기의 장점

‘48시간 역사순 성경듣기’와 ‘1년 10번 성경듣기’ 참석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통(通)성경 방법론의 장점을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먼저는 성경을 부분이 아닌 전체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인터뷰에 응한 참석자들은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로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으며, 전체를 조망하면서 부분을 세밀하게 살필 수 있게 됨을 말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친밀하게 알 수 있게 됨으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성경 전체를 보는 훈련이 삶 속에서 전체를 볼 수 있는 습관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말한다.

또 하나의 중요한 장점은 장르별이 아닌, 역사순으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역사순으로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인물의 순서나 공간의 이동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성경의 사건을 더욱 완성도 있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경전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성경의 사건을 쉽게 기억하고, 아전인수식 해석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말한다. 또한 성경을 이해하는 지름길을 제시 해주며,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말한다.

인터뷰 참석자들은 성경듣기의 장점과 유익한 점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는데, 그 내용을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성경의 이야기를 마음에 그려가며 들을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성경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 확보와 환경조성이 읽기 보다는 훨씬 유리하다는 점이다. 산책이나, 출퇴근 시간, 집안에서의 가벼운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성경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만 정하면, 언제든지 주변 환경이나 개인의 컨디션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으며, 읽기에 비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말하지 못하고 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정에서 엄마가 아이와 함께 성경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은 귀로 듣는 방법이다. 말을 못하고, 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들도 귀로 들을 수 있는 있기 때문이다. 넷째는, 듣는 것은 읽는 것에 비해 좀 더 속도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며, 시각이 놓치는 부분들을 청각이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 다섯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반복하면서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믿음이 훈련되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좋은 자세가 훈련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제 VI 장

결 론

요약과 평가

지금까지 통(通)성경 방법론을 통한 성경듣기에 대한 연구내용을 살펴보았다. I 장 서론에서는 본 논문의 필요성과 선행 연구,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한성, 그리고 논문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II 장에서는 통(通)성경 방법론을 다뤘는데, 통(通)의 개념과 통(通)의 방법론, 21세기와 통(通)을 통해 통(通)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았고, 통(通)성경에 대해 다뤘다. III 장에서는 듣는 성경을 다뤘는데, 청각적 환경과 듣기의 중요성, 듣는 성경의 성경적 근거, 듣는 성경의 신학적 근거, 듣는 성경의 목회적 근거에 대해 살펴보았다. IV 장에서는 성경듣기 진행의 실체를 다뤘는데, 48시간 역사순 성경듣기와 1년 10번 성경듣기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V 장에서는 성경듣기 참여자 심층 인터뷰를 다뤘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통(通)성경 방법론을 통한 성경듣기’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함에 있어 모든 부분을 충족시켜 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듣기보다는 시각화하려는 현상들과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대변되는 21세기 시대적 상황 속에서 통(通)성경 방법론을 통한 성경듣기는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특별히, 통(通)박사 조병호의 ‘통(通)성경’ 방법론과 레너드 스윗의 ‘내러포(narraphor)’ 방식이 21세기의 시대적 상황과 개신

교회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종교개혁 정신을 회복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이해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과 도구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성경듣기’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성경의 스토리는 물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함에 있어 매우 유익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과 제언

종교개혁 500주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개신교의 교회들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실제로 “Sola Scriptura”를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 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대안들이 마련되고 있다. 조병호와 박종천을 비롯한 140명의 한국 신학자들은 ‘서울선언’을 통해 한국교회와 신학 그리고 신학교육이 성경을 통해 재정향되어야 함을 천명한 바 있다.¹ 이러한 바람직한 움직임들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 시대의 상황과 분위기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인 중세의 분위기와 비슷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말씀과 상관없는 교회와 개신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신교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첫걸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듣는 운동이 필요하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롬 10:17)는 말씀을 기억할 때, 성경듣기 운동이 21세기 개신교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1세기의 시대적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들을 수 있는 청각주도적인 환경이 아니라, 중세처럼 시각주도적인 특성이 강하다는 지적²은 참으로 뼈아픈 지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기 보다는 신앙의 내용들을 시각화시킴으

¹ “한국 신학자 140인 서울선언: 성경을 통(通)한 재정향,” *자료집* (2008), 7.

² 윤천석, “사이버시대와 시각주도적 감성에 대하여,” 87.

로 교회의 본질을 왜곡시킨 중세 로마 카톨릭의 모습에서 빨리 돌아서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 지금까지 시각적인 어떠한 모습으로도 당신을 인생들에게 계시하신 적이 없다. 오히려, 인생들에게 말씀하심으로 그리고 인생들은 그 말씀을 들음으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알게 되었고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 우상은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모세를 비롯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과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단과 벧엘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운 사건을 통해, 시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은 그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고 가능하지도 않음을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시각적인 어떤 방법으로도 당신을 계시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시내산에서 발생한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실 계획을 세우신 것과, 여로보암이 단과 벧엘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움으로 여로보암의 뒤를 잇는 18명의 북이스라엘 왕이 우상숭배의 최악된 길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기억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시각화하는 것이 얼마나 큰 최악인지를 알 수 있다. 로마 카톨릭의 모습은 하나님을 만나고 찾아가는 방법을 시각화 시킴으로써 시내산의 금송아지와 여로보암이 세운 단과 벧엘의 금송아지의 연장선에 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제 개신교회는 시각주도적인 신앙적 환경에서 청각주도적인 환경으로 돌아와야 하며, 성경듣기를 통해 말씀회복운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또 하나의 중요한 결론은, 성경듣기 운동을 어떤 방법론으로 펼쳐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통(通)성경 방법론을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장점은 살려가되, 그것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통(通)성

경 방법론을 살펴보았다. 성경을 부분이 아닌 전체로 보는 것, 성경전체를 역사순으로 재배열하여 보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³을 중요내용으로 하는 성경통독 방식은 성경을 공부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성경을 시간·공간·인간을 통(通)으로, 개인·가정·나라를 통(通)으로, 제사장 나라·5대 제국·하나님 나라를 통(通)으로, 7개 트랙과 7개 스텝으로 이야기하며, 성경을 파편화하지 않고 66권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모든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쉽고 재미있고 이어지는 이야기로 가르쳐야 한다는 조병호의 주장⁴과, 성경의 사건들을 내러포(narraphor)의 방식을 통해 이야기와 은유로 들려줘야 한다는 레너드 스윗의 주장⁵은 21세기 시대적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해하고 공부하며, 효과적으로 계승하는 매우 유익한 방법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대변되는 21세기 시대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통(通)의 방법론(원스토리, 역사순, 하나님의 마음)과, 내러포(narraphor; 이야기, 은유) 방법론을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듣기를 제안한다. 다시 말해 통(通)성경 방법론을 통한 성경듣기 방식인 ‘통청(通聽)운동’을 제안하는 것이다. 한자인 ‘들을 청’의 글자 구성을 보면 왕의 귀와 열개의 눈, 하나의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듣는다는 것’은 귀를 열어 마음으로 듣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성경통청(通聽)’은 통(通)성경 방법론을 활용한 성경듣기로 전혀 글을 알지 못하는 유아들로부터 눈이 어두워 글을 읽기가 어려운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세대에 걸쳐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개신교회가 신앙의 본질이면서 종교개혁자들의 핵심이었

³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16-17.

⁴ Ibid., 15.

⁵ 김영래, “내러포와 기독교교육,” 546.

던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에 ‘통(通)성경 방법론을 통한 성경듣기’ 다시 말해,
‘성경통청(通聽)’ 운동이 매우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기대
한다.

참고 문헌

외국어서적

Berendt, Joachim-Ernst. *The Third Ear: On Listening to the World*. New York: Holt & Company, 1988.

Leeds, Joshua. *Sonic Alchemy*. Wisconsin: Hal Leonard, 1997.

Madaule, Paul. *When Listening Comes Alive: A Guide to Effective Learning and Communication 2nd Edition*. Toronto: The Listening Centre, 1994.

MCIPS MBA, Ade Asefeso. *Corporate Storytelling: Tell Them Your Story*. Wiltshire: AA Global Sourcing Ltd, 2014.

Sweet, Leonard. *11 Genetic Gateways to Spiritual Awakening*. TN: Abingdon Press, 1998.

Sweet, Leonard. *Giving Blood: A Fresh Paradigm for Preaching Grand Rapids*. MI: Zondervan, 2014.

Sweet, Leonard. *The Greatest Story Never Told: Revive Us Again*. TN: Abingdon Press, 2012.

Tomatis, Alfred. *The Conscious Ear: My Life of Transformation through Listening*. New York: Station Hill Press, 1991.

Thoms Verny. *The Secret Life of the Unborn Child*. New York: Dell Publishing Company, 1981.

Wil Watson. *The Principle Centered Life: Paradox - or Positive Living?*. IN: Author House, 2008.

번역서적

Calvin, John. *기독교강요*. 김종흡, 신복윤, 이종성, 한철하 공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7.

Restak, Richard. *The New Brain: How the Modern Age Is Rewiring Your Mind*. 임종원 역. 새로운 뇌. 서울: 휘슬러, 2004.

Sweet, Leonard. *The Gospel According to Starbucks*. 이지혜 역.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Willimon, William H. *Pastor*. 최종수 역. *21세기형 목회자*.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04.

한국어서적

김낙준. *뉴에이스 국어사전*. 서울: 금성교과서주식회사, 1993.

김영미. *초등 듣기능력이 평생성적을 좌우한다*. 서울: 글담출판사, 2009.

박준수. *성공을 부르는 말 실패를 부르는 말*. 서울: 시간과 공간사, 2001.

서정록. *잃어버린 지혜 듣기*. 서울: 샘터, 2014.

윤재성. *윤재성의 소리영어*. 서울: 스토리, 2014.

조병호. *48시간 역사순 성경듣기 가이드북*. 서울: 통독원, 2014.

조병호. *그 순간*. 서울: 통독원, 2015.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통독원, 2009.

조병호. *유대인과 패밀리스쿨*. 서울: 통독원, 2015.

조병호. *일년일독 통독성경*. 서울: 통독원, 2008.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15.

조병호. *통성경학교*. 서울: 통독원, 2015.

조병호. *통이다 랫츠통*. 서울: 통독원, 2007.

논문, 잡지

강응섭. “루터에 따른 믿음과 회개: 들려줌과 들음의 변주.” 38, *한국복음주의조직신학회 조직신학연구*. 2014년 6월, 197-233.

김대진. “권위적인 한국적 상황에서의 제자훈련으로서의 설교: 듣기의 해석학을 향하여.” 박사학위논문, University of Stellenbosch, 2013.

김영래. “내러포와 기독교교육: 성경교수방법으로서의 내러포 탐구.” 84, *신학과 세계*. 2015, 526-554.

김현아. “동화 들려주기가 유아의 창의력 증진에 미치는 효과.” 1, *한국창의력교*

육학회. 1997, 65-90.

서경희. “그림 없는 동화 반복 듣기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2011.

오정림. “똑똑한 아이로 키우려면 듣기 교육이 먼저다.” 2, *맘 & 앙팡*. 2013년 2월호.

윤천석. “사이버시대와 시각주도적 감성에 대하여.” 6, *조직신학연구*. 2005, 77-102.

“21세기 동서동행 미래교회 컨퍼런스.” *자료집* (2007).

“세계석학칼럼: 동서양교회의동행.” *국민일보* 2007년 3월 22일.

“한국 신학자 140인 서울 선언: 성경을 통(通)한 재정향.” *자료집* (2008).

V I T A

PERSONAL DATA

Full Name: Hansung Kim

Place and Date of Birth: Gochang-Gun, Jeollabuk-Do, South Korea, Oct.24, 1971

Parent's Names: Younggi Kim and Panyee Yang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Secondary: Sangsan High School 130 Geomapyungno, Wansan-gu, Jeonju-Si, Jeollabuk-Do, South Korea	Diploma	Feb. 12, 1991
Collegiate: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y Seminary 25-1 GwangJangno 5-gil, GwangJin-gu, Seoul, South Korea	B.A.	Feb. 11 1997
Graduate: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y Seminary 25-1 GwangJangno 5-gil, GwangJin-gu, Seoul, South Korea	M.div	Feb. 15, 2001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Hansung Kim

Name typed

May 6, 2016

Date